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No. 918- 919 1982년 9월 3일(금) & 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September 3 &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9 1982

레이건

팔레스타인 자치국 제의

이스라엘 점령지 웨스트·뱅크, 가자에

(버뱅크-캘리포니아)레이건 미국대통령은 1일 항구적인 중동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찾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요르단정부의 협조를 얻어 팔레스타인정부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전국으로 방영된 TV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베이루트로부터 평화로이 철수함으로써 중동평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78년 이집트, 이스라엘및 미국이 조인한 「캠프·데이비드조약」속에는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립을 위한 5개년 예정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들 두 지역으로부터 완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스라엘 관리들은 레이건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하기 이전 이미 이스라엘은 웨스트·뱅크나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국가 전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었다.

모나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레이건대통령의 이와 같은 제의를 "미국의 새로운 간섭"이라고 격분하고 이날 비상각의를 소집하기 위해 휴가일정을 취소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 내각이 레이건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한다는 회답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제의외에 67년 이스라엘이 점령, 이스라엘 수도의 일부로 합병시킨 동예루살렘의 아랍부분을 포함한 예루살렘 구역 재조정에 대해서도 협상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베긴수상은 레이건대통령의 이같은 두개의 제안은 모두 「캠프·데이비드 협정」의 문구와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협정」의 문구는 이 두 점령지에 대한 행정기능을 이스라엘에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동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팔레스타인 자치권문제는 이집트의 고 사다트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제의됐었다.

팔레스타인 밀집지역

해설

웨스트·뱅크, 가자

웨스트·뱅크는 면적에 있어서는 5,880평방킬로로 메트로·토론토의 9배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동예루살렘을 포함, 85만명에 이른다. 이중 2만명 정도가 유태인이다.

웨스트·뱅크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대부분 요르단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언제나 팔레스타인 사람임을 자처한다.

나머지 5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67년 제3차 아랍·이스라엘전쟁 이전의 이스라엘국경선내에 살고 있으며, 이들을 이스라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한편, 서남쪽에 위치한 가자지역에는 40만명이상의 아랍인들이 살고 있으나, 이들의 국적은 명확하지 않아 유엔발행신분증명서등 여러가지의 여권을 소지한다.

◆중동전쟁의 본산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역은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

레이건 친서전달

앵커리지의 전대통령에

(서울2일=연합)레이건미대통령은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도중 31일 알라스카의 앵커리지에 기착한 전두환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전대통령이 미국영토에 들른 것을 환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레이건대통령이 친서에서 "본인은 귀하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 방문을 예의 주시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대통령은 지난해 2월초 워싱톤을 방문, 레이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순방5개국

기업조사단 파견

(서울2일=연합)현대, 대우, 삼성, 효성등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전두환대통령의 아프리카및 캐나다 방문에 따른 사업가능성을 탐색키 위해 현지조사단을 캐나다를 비롯한 5개 대통령순방국에 파견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은 이들 재벌 대표들이 전대통령을 수행, 5개국을 순방한후 1일 귀국한 직후 결정되었으며, 이들 현지조사단들은 자동차생산, 농기구, 살충제, 전자및 소도품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회사측은 밝히고 있다.

◆전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한복차림으로 나온 교민들. 캐나다 전국에서 모두 천여명의 교민들이 환영했다.

해설

전대통령 부드러운 지도자상

한·카무역협상 의견접근

28일밤 오타와 대사관저에서는 교민리셉션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데모대가 "양심범을 석방하라"는등 구호와 "고향의 봄"등 노래가 끊임없어 대통령의 인사말이 방해받았다.

한국정부 관리들과 초청된 고민들이 서로 어색한 감정을 갖는 순간 대통령은 한마디 죠크를 던졌다.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온줄 알게되어 나는 더 유명해지게 됐다"고. 한 교포는

"79년 10월 박대통령 피살후의 혼란, 12.12 숙군, 광주사태등 큼직한 대사건을 치른 분이기에 의심많고, 조바심하며, 신경질적 모습을 연상했으나 전혀 그 반대였다"고 말했다.

한 캐네디안 경호원은 "그가 KCIA, 보안사령부등 정보기관장이었다고 해서 소련 KGB의 베리아 같은 인물을 연상했으나 그렇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1월 미국에, 작년 6월 동남아, 그리고 이번이 3번째의 외유였다. 전대통령이 한국 최고의 실권자로 등장한 것을 80년 여름으로 본다면 그는 집권 2년만에 이번 캐나다 방문을 포함해서 3번이나 외유에 나서는 안정된 기반을 구축한 것이며, 이 사실은 각국정부와 해외교포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63년1월14일 한·카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65년8월23일 오타와에 한국대사관이 설치된 이후 캐나다를 방문한 첫 한국행정수반인 전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작년 8월 트루도수상의 한국방문에 대한 답례형식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것은 캐나다측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것은 같은 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우호의 재확인이며 좀더 무역을 넓혀 서로 잘 살아보는데 힘쓰는 의례적 성격이었기에 공동성명이나 양국수뇌의 합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협정에 동의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서약도 없었다.

한국측은 태평양연안국의 연례 정상회담 개최, 한국수출품에 대한 캐나다의 형벌적 특별관세 철폐, 지하자원 공동개발, 어로협정체결등을 원했고 캐나다측도 한국측이 캔두원자로 제2호기를 비롯, 통신기재, 컴퓨터기재, 항공기 부품등 고도의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입을 늘려 주기를 바랐다.

수뇌회담과 각료회담도 피차 의견 교환에 그쳤다.

구체적이고 직접적 효과가 당장 눈앞에 없었다해서 대통령의 방문이 "무의미"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양국 원수가 서울과 오타와에서 두번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시된다.

트루도는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제3세계국들과 관계를 가지려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물건을 많이 팔아야 캐나다의 경제가 지속되니까. 그는 이중에서도 면적은 캐나다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나, 인구는 두배나 많은 한국을 중요시 한다. 교역 10여년간 양국 무역량이 15배로 늘어 한국은 캐나다의 제7대 수출국이며, 한국으로 볼 때 캐나다는 제10대 수출국이라는 사실은 캐나다가 한국을 조금도 무시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통계이다. 이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은 5만명 캐나다교민들의 비중을 키워줬다고 보아 무방하다고 풀이된다.

교민들은 대통령의 외유를 앞두고 구베타등을 퍼트린 유비통신(속칭 유언비어를 말함)이 전혀 근거없었음을 확인했다. (토론토에서는 대통령이 9사단에 잡혀있다는 등, 외유중 정변이 일어났다는 등 소문이 많았다.)

대통령은 3박4일 체류중 캐나다측에게 한국 이민의 증가를 요청할 처지는 못되었으나, 그가 교민리셉션에서 한 말을 보면 대통령은 한인들의 해외진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오기송 한인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교포 이민증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긍정했다. 대통령을 수행한 한 국회의원은 후에 "앞으로 수년내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함축성 있게 말해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있다.

쳐렬한 반대데모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때 있었던 찬·반데모대간의 폭력사태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었다.

이번 대통령방문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이규현 주캐나다 한국대사와 윌렴·바우어 주한국 캐나다 대사이다. 재임 기간중 본국과 주재국 수뇌의 교환방문을 이룩한 이들은 평생 이같은 일을 당해보지 못하는 많은 다른 외교관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 대사는 29일 "본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지요"라고 흐뭇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유승민부장〉

한국교민 공헌 치하

슈라이어 총독, 만찬석상서

(오타와=특별취재반)에드워드·슈라이어 총독은 31일밤 한국교민들이 캐나다에 끼친 공헌을 치하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유대는 88년에 한국과 캐나다에서 하계·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등 결코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밤 8시반부터 관저인 리도·홀에서 한국및 캐나다 인사 1백여명을 초대한 전대통령 캐나다방문 만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슈라이어총독은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이후 양국의 우호 약사를 피력하고 유대증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회에는 교민대표로 토론토대학 한국학과 후원회장인 윤여화씨만이 초대됐다.

정식만찬의 형식을 갖춘 이날 파티는 악단의 배경음악이 깔리는 가운데 밤 12시경까지 계속됐고 피아노 독주도 있었다.

캐나다측에서는 트루도수상을 비롯한 고위각료, 연방의원들, 한국측에서는 수행관리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최승낙 캐나다외환은행장도 만찬에 참석했다.

◆윤여화 씨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만물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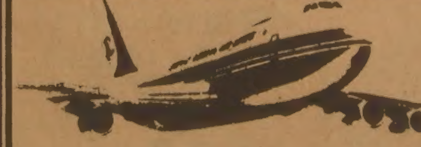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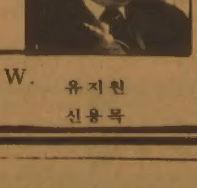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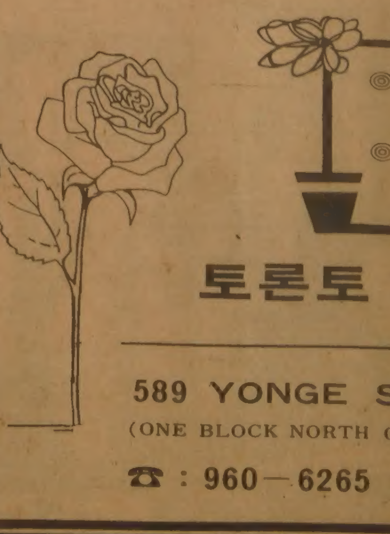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헌
신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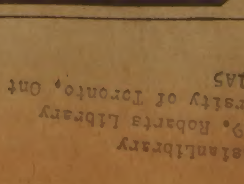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렌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 960－6265 MR. 김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번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 안수일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0만명 경찰과 충돌

솔리대리티 발족 2주년 맞아 시위

셋숨지고 수천명 체포

(바르샤바)폴랜드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발족 2주년을 맞아 폴랜드 전국에서 벌어진 50만 국민의 데모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2일 전했다.

관영 TV방송은 솔리대리티의 본산지인 그댄스크의 거리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한 청년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숨진 다른 2명은 경찰의 총격에 희생됐다. 폴랜드 경찰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 수류탄, 최루탄등을 사용했고, 국민들은 투석과 사제폭탄으로 이에 대항했다.

데모대들은 경찰에 "게슈타포"라고 외쳤고, "레·바웬싸를 석방하라"는 구호와 폴랜드 국가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의미가 담긴 가사로 바꾸어 불러댔다.

사흘간 계속된 데모로 경찰에 체포된 수만도 4천50명이 넘은 최근의 시가데모는 2년전 공산진영 최초의 자유노조 솔리대리티의 구성을 폴랜드 정부와 합의한 8월28일을 기념하여 계엄하의 현 폴랜드 정치체제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2년전 무명의 전기기술자였던 레흐·바웬싸는 노동자들의 권익운동을 이끌어 솔리대리티 지도자로 부상했고, 그의 지도하의 솔리대리티는 소련의 무력지원을 업은 폴랜드 공산정권을 뒤흔들었다.

바웬싸는 현재 소련 국경부근의 교외에 구금돼있으며 솔리대리티는 지하로 잠적했다.

폴랜드 국가구제위 수반인 야루젤스키장군은 이번 전국항의데모에 대해 "서방방송국들이 지원한 반사회주의적인 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솔리대리티 결성 기념행진으로 시작된 시위가 폭력사태로 확대된 것은 경찰이 행진에 개입한데서 비롯됐다.

한편 레흐·바웬싸의 부인 다누타여사는 그댄스크에서 가진 기자와의 회견에서 "남편은 지금과 같은 시가충돌을 반대한다. 당국과 대결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충돌로 지하에서 군부와 대결하기 위한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노동지도자들의 힘에 타격이 온 것으로 보인다.

서방 외교관들은 시가충돌은 계엄령을 위반하는 어떤 국민도 무자비하게 처단할 수 있다는 당국의 힘만 과시해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군사위원회는 데모에 관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야루젤스키장군이 밝혔던 금년말 계엄해제 가능성을 더욱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

군부는 솔리대리티 자문역을 해온 국민자위위원회(KOR) 멤버들에 대한 박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KOR은 폴랜드 지식층 저항인사들의 모임으로 솔리대리티가 발족되자 해체됐었다.

자섹·쿠론, 아담·미츠닉등이 이끄는 KOR은 70년대 말경부터 폴랜드의 인권위반에 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많이 익숙한 광경…. 그러나 한국은 아니다.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결성 2주년을 기념하는 항의데모대가 31일 그댄스크에서 최류탄등으로 무장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교민동정

◆조정대(문인협회장)=다년간 경영해온 모닝사이드의 버라이어티 가게를 팔고, 8월 한달간을 관광의 달로 삼고 럭키산맥을 훑고, 뱅쿠버까지 여행하고 또한 유럽 여러나라 순방관광도 하고 월말 돌아왔다.

그동안 시상은 많이 잡아왔다고….

◆김순환(Yonge꽃집 경영)=지난 1일 다운타운 지역의 꽃집을 인수했다.

순수한 화초만 취급하는 가게로서 1류 꽃전문가를 채용, 봉사한다고.

손님이 원하는 장소는 토론토 어디든지 배달하며, 품질과 신용으로 교민에게 선보이겠다고 기염.

현재 케네디꽃집을 경영하는 김웅일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영규(가게 경영)=과거 한국관도 경영했고, 최근까지는 듀폰 서브웨이 맞은편 버라이어티 가게를 경영해 왔는데, 남에게 팔고, 영·스트릿×대벤포트의 큰 식당을 매입, 9월중순 안으로 문열 예정이다.

◆박세진=지난 21일 우먼즈·칼리지병원에서 첫아들을 순산했다. 박씨는 9월학기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RHODES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막내동생 유진군은 방학중 캐나다에 왔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

◆최기주(동궁식당 경영)=지난달 30일 식당 「동궁」을 인수했다. 식당업은 처음이라서, 특히 술 칵테일을 원하시는 손님에게 만들다 보면 실수로 잘못 만들어, 버리기 아까와 그냥 마시다 보니, 요즘은 매일 술취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최씨는 "앞으로 한인교포들을 위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겠으며, 시설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꾸미겠다"고 포부를 털어 놓았다. 현 「서울여행사」장 최동주씨의 둘째 동생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논단〉

차별문제에 대해서

문우일 박사(매니토바대학교 지구물리학)

◇문우일 씨

최근에 한두사람의 입에서, "캐나다에서의 인종차별문제와 한국계 캐나다인 사회에 대해서"라는 토론이 있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일이 있다. 토론이 끝나고 나오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크게 실망한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캐나다 각도시(벤쿠버,캘가리,에드몬톤,위니펙,토론토,해밀톤,몬트리얼등)의 한국계캐나다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더 그런 것같았다. 이 모임에서 대강 결론을 본 요점은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과 피섞여 많은 결혼을 시켜야 하고, 캐나다에 한국에서 오는 이민을 늘이도록 운동을 벌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차별을 받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조리있게 반박내지는 대책을 해야될 것이라는 점들이었다. 물론 이들중에는 박사님수만도 거의 열명이 되는 것같으며, 또 자연과학자같은 사람으로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논하는것도 외람되니, 분석을 해보고 비판하기보다는 과연 우리의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를 추구해 보고 싶다.

첫째,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문제는 실현성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캐나다 인구의 영점몇퍼센트 밖에 안되는 우리가, 딸이 하나 있다면 천명의 백인과 결혼을 시킬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캐나다의 매쓰 국제결혼을 시켜야 할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얼마나 많은 세대후에나 이 결과가 나올는지? 하는 문제다.

둘째, 이민수를 늘리도록 운동을 벌리는 일은 첫째, 결론보다는 좀 더 실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느나, 실현면에서 요원한 얘기다. 캐나다는 매년 한정된 수를 정해 놓고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 수는 캐나다의 경제성장, 사회문제 해결등 등 많은 요인들을 연구한 후에 결정됐고, 연방정부에는 앞으로의 십년·이십년의 계획들이 서있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이 제한된 수중에 영국계통이나 영연방 나라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사실이니, 우리가 이제 운동을 일으켜 뉴-스를 만든다 해도 그 결과란 아주 미미한 것이 예측된다.

더우기 캐나다의 정책문제, 사회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백인들일 것이니 더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 요점인 차별받는 때는 이에 대책되는 행동을 취한다는데는 아주 동감이다. 그러나 이것은 능동적이 아니고, 차별의 문제가 표면화된 후 피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니 역시 차별문제의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근래에 자주 듣기로는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사회가 혼란되면 인종차별이 심해진다고 한다. 또 2월27일(1982년) 캐나다 복합문화성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주로 중점이 돼서 토론이 돼 오는 것 같다. 이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의 31.3%가 캐나다를 백인국으로 하는데 수긍한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첫째, 이것이 새로운 사실인가? 우리가 이제야 인종차별 문제를 토론한다는데 의아심이 가기도 한다.

둘째, 경제·사회혼란에 따르는 인종차별문제란, 대개 중류·하류사회의 사람들의 반응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변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이어서 덜 중요할 것 같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사회의 저류로 흐르는 차별문제로서 이 사회에서 교육이 높은 지도자층의 두뇌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지도자층은 잠시적인 경제추세에 따르는 사회중류나 하류의 사람들의 임시적 감정을 이용해서 소수민족에게 핍박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서 더 위험한 것이다. 역사에는 그런예가 많이 있고, 최근의 한예는 독일의 힛틀러이다. 이 근본적 문제를 완화시키는데는 국제결혼이나, 이민증가운동으로는 안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방침이 필요할 것 같다.

캐나다 복합문화성의 여론조사 발표가 2월27일에 나기 훨씬전 작년부터 미국·캐나다 잡지들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고, 금년 정월만 해도 〈쌔터데이·나잇〉이라는 잡지에 유태인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분석한 것이 큰 기사도 릭·살류틴에 의해서 실려있고, 역시 복합문화성 발표전 그 다음달호 〈쌔터데이·나잇〉에 두페이지에 걸친 독자반응이 났었다. 이중 한 사람은 마가렛·로렌쓰로서 최근 학교나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낙서는 임시적인 경제불황에서 오는 간주곡이 아니고 이 사회의 큰 암으로 중요시 되었다.

백인인 유태인들이 벌써 이렇게 경고해 왔고, 마가렛·로렌쓰씨가 복합문화성 발표에 앞서 캐나다의 지식인들 한테 호소내지 성난 연설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마가렛·로렌스라는 여사는 우리가 술주정뱅이, 성병환자, 거지라고 천대하는 캐나다 인디안(원주민) 출신 소설가로서, 유명해져서 이 여사의 소설들이 캐나다의 고등학교, 대학교의 국어(즉, 캐나다영어)교과중의 하나로 쓰여지는 분이다.

이제 캐나다의 한국계 여러분들도 인종차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했다는데 희망을 걸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기다려 보겠다. 그러나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등 분야에서 북미대학에서 박사학위들을 하고, 이 나라의 일류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은 캐나다의 언론계를 통해서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존재, 억울함등을 이곳 지식인들한테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어 보지 않으시려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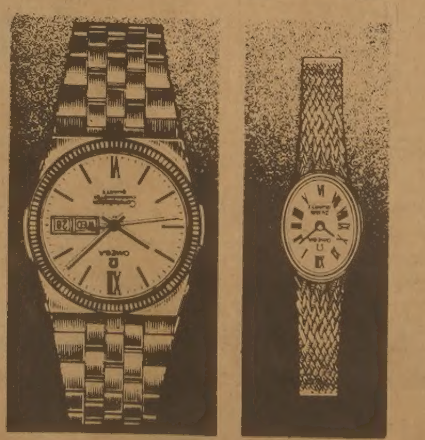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언론처럼 중요한 기구는 없고, 유태인들은 이 언론 매쓰메디아를 콘트롤하고, 기회있을때마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한 예로는 우리 "나치"나, "히틀러"라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자.

2차대전이 끝난지 40여년이 돼 가는 지금도 TV나, 신문 또는 라디오에서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번씩 "나치", "히틀러"의 비인도적인 폭행을 우리는 들어온다. CBC의 FM라디오는 들어도 아름다운 고전음악이 나온다. 그치면, 시나 강연이 있을때 "나치"가, 또는 "히틀러"가, 또는 요사이는 "쏘련"인들이 얼마나 악독히 유태인들을 학살했는지 하고 우리를 세뇌 한다. 결과로 "나치", "히틀러" 또는 "쏘련"인들은 나쁘고, 왜 나쁘냐 하면 유태인들인 자신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들이나, 우리의 어린이들은 유태인을 학대하든가, 해하려는 사람들은 다 나쁜것으로 생각되어지게 만들어 지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이미 인종차별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한 이즈음 한국계 캐네디안들중에 문과계통에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의 책임이 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인종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방침들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한국과 캐나다가 뜨거운 우정으로 만나는 곳
—토론토 한국일보—

OMEGA
오메가시계 남·녀용



$ 175 부터(보증서 첨부)

가을맞이 대매출

세일기간 :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세무, 가죽제품,
섬유원피스,
브라우스, 바지등.

50% OFF

물세무(남·녀용)
코트·투피스

LONDON FOG®
(런던·포그)
남·녀코트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반공순교영화 2편 상영

승공협회『영화의 밤』

승공문화협회(회장 이근우)는 오는 10일(금)과 11일(토) 하오7시 윈스톤·처칠 Secondary School(2239 Lawrence East, 케네디 서쪽)에서 2편의 순교실화 반공 종교영화를 가지고, 「한국영화의 밤」을 가진다.

첫날(10일)은 장동휘·윤일봉·도금봉 주연의 「사랑의 뿌리」를, 11일은 이신재·송승환·박소미·이형준 출연의 손양원 목사 순교실화 「사랑의 원자탄」을 상연한다.

입장료는 1달러(장내 정리비). 입장객들에게는 태극기·캐나다기의 자동차용 스티커를 증정한다.

주최측은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실화 영화「사랑의 뿌리」와 「사랑의 원자탄」의 많은 교포들 관람을 바라고 있다.

한국에서 최우수 시나리오상과 최우수작품상을 받았으며, 독일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은바 있는 명화 「사랑의 뿌리」는 사랑의 사도 김정복 목사의 전기중 극적 실화를 영화화한 감동편으로 천대선 목사의 각복·제작으로 수년전에 만들어진 16미리·시네스코이다.

◆「사랑의 뿌리」줄거리

일제말 시골국민학교 교사 박학구(윤일봉 분)가 나병에 걸려 파직당한다. 결국 두 아들을 아내(도금봉 분)와 하나씩 나누어 맡고 생이별한다.

박은 자기가 맡은 맏아들(장동휘 분)과 함께 눈길을 가다가 남의 집 처마밑에서 아들이 쓰러지고 만다.

밤예배를 보고, 딸과 함께 돌아오던 김정복 목사가 이를 발견, 이 부자를 집에 데려와 1주일간 간호한다.

박학구는 김목사의 주선으로 소록도 나병요양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김목사는 박학구에게 성경과 찬송가책을 선물로 주어 소록도로 보내고, 매주 한번씩 그 요양소를 찾아가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보고 전도에 힘쓴다.

장면은 소록도생활의 참상을 전해준다. 중노동에 허덕이는 쓰라린 고통의 생활과, 학대를 일삼던 일본인 요양소장의 행패가 김목사의 방문을 반대하여 구박이 심하자, 격분한 젊은 수용자가 소장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만다.

박학구는 소록도에서 병들어 죽는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장남(장동휘 분)이 8.15 해방후 재일교포가 되어 소록도로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그 사망을 알게되고, 아버지를 잘 아는 노인에게서 전후사정 얘기를 듣는다.

그는 수소문하여 어머니를 찾다가 동생이 종군목사가 되어 1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생을 만나러 1선으로 간다. 어머니는 전방지구에서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다.

전방부대에서 형제는 상봉한다.

군목복장의 동생이 "형님, 어머니가 교회에 계시니 함께 갑시다"하여 결국 오래간만에 모자상봉이 이루어진다.

며칠간어머니, 동생과 함께 지내다가 장남은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긴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 살자"고 거듭 졸라대어 결국 그도 일본행을 그만 두고 한국에서 살게된다. 사실은 그는 조총련계로 모종의 밀명을 띠고 귀국했던 것이다.

"피는 사상보다 진하다"는 민족심을 이 영화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김정복 목사는 6.25 사변때 인민군에 의해 피살, 순교한다. 김목사의 사위가 불온사상가로 "못된 놈!"이라고 저주하며 장인을 밀고하여 김목사가 총살당한 것이다.

김목사의 스토리는 실화이며, 한때 한국군 군목을 지낸 그의 아들과 기타 자녀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원 목사의 순교실화이다.

여수·순천 반란사건때 양아들로 삼은 자가 양부인 손목사를 죽게하는 줄거리로 손목사는 태연히 기도하는 자세로 총살당해 순교한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三國志 〈452〉

글·高羽榮·그림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金聖鍾 작

어떤 殺人 ⑧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illegible]의 사나이

<61>

두봉은 조그마한두눈이 쥐새끼처럼 반짝거리고 있는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자가 빨리 자줘야할텐데 하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싸수가 노란 걸 봐서 그만 두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 자네같이 유능한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가서 일하는 게 나을 거야. 자넨 아직 젊으니까 말이야. 나같은 사람이야 올데 갈데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말이야.』

바둑을 서너판 두고나자 자정이 지났다. 김무근이 하품을 하는 걸 보고 두봉은 바둑을 던졌다.

『3승1패 ― 자네 바둑대단하군. 이렇게 무참하게 깨지다니 더 두고 싶은 마음없는데 ―』

『그만 자죠.』

『교대로 자기로 하지. 자네 먼저 자게.』

『아이, 선배님도…. 그러실 필요가 뭐 있읍니까. 이거 다 형식 아닙니까. 함께 주무시죠.』

『아니야. 난 좀 있다가 잘테니까 염려말고 먼저 자라고.』

『그럼 먼저 자겠읍니다.』

김무근은 숙직실로 재빨리 들어가 버렸다.

두봉은 난로가에 멍거니 앉아있었다. 자정이 지났는데도 피곤하기는커녕 머리속이 맑기만 했다. 바람이 부는지 창문이 덜컹거리고있었다. 나는 여기에 왜 이러고 있는걸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 나는 내차례도 아닌데 당직을 자청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따지기가 두려웠다.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무는데 숙직실쪽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기다리고있던 신호였다. 그는 그 신호가 들려오지 않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코고는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2천만원 벌려고 두봉은 實驗室로…

그는 숙직실로 다가가 보았다.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불을 켜보았다. 청년은 네 활개를 쭉 펴고 잠들어 있었다. 이불 밖으로 다리하나를 내놓고 있었는데 기분좋은 꿈을 꾸고 있는지 불쑥 솟은 사타구니를 한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두봉은 불을 도로 끈 다음 문을 닫아주었다.

이제 마음에 걸리는것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수위였다. 그러나 그는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고 있지 않다해도 주의만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실험실은 맨 위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연구실 바로 옆이 실험실이었다.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는 실험실에 노상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구역에 대해서는 확히 알고있었다.

1층 영업부 사무실 전등을 끄고나서 그는 가만히 복도로 나왔다. 달빛하나 없는 밤이라서 복도는 몹시 어두웠다. 플래시를 들고 있었지만 일부러 켜지 않았다. 그리고 무섭기조차 했다.

5층에 닿았을때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있었다. 2천만원벌기가 그렇게 쉬운줄 아느냐. 그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실험실문은 잠겨있었다. 그러나 여는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열쇠구멍에 열쇠를 꽂은 다음 오른쪽으로 비틀자 찰칵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실험실은 백평정도의 넓이였기때문에 꽤나 넓은 편이었다.

그는 각종 실험기구들이 잔뜩 널려있는 실험대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朴男 그림

새映画

헨리·윈클러 주연의

야간근무

▲시체안치소 직원 척과 창녀 벨린다의 사랑을 코믹하게 그린 「야간근무」

TV 코미디시리즈 「해피 데이스」의 롬비로·하워드가 감독하고 헨리·윙클러가 주연한 「Night Shift」는 짜임새는 있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스개 얘기.

정사중에도 단 것을 먹으며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정사사절」을 하는 까다로운 약혼녀를 가진 척·럼리(헨리·윙클러)는 뉴욕시 시체안치소에 근무하는 순진하고 착한 사내.

그가 어느날 상사의 친척에게 낮근무 자리를 뺏기고 밤근무로 밀려나면서 온갖 일이 벌어진다.

척의 야간조로 들어온 친구는 자칭 아이디어맨 빌(마이클·키튼). 쉴새 없이 움직이고 떠들어 보는 사람의 혼을 빼놓는 빌은 장의차를 리무진으로 대여, 돈을 벌어먹는 등 갖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소유자로 척을 꼬득여 「러브 브로커」사업을 시작한다.

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리가 길고 귀염성 있는 창녀 벨린다(셸리·롱)와 그의 동료 10여명을 떼거리로 모아 마음 좋고 이윤 공동분배하는 핌프노릇을 해 열심히 돈을 번다. 그리고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듯 둘이 감격적인 사랑에 돌입하고.

이 영화는 비평가들의 엇갈린 비평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영화가 재미 없다고 말하지 않듯 그런대로 자잘한 재미는 있다. 그러나 이 자잘한 재미와 스크린에 등장하는 새 얼굴 그리고 보면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셸리·롱등을 제외하면 넌센스코미디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것은 이 영화가 무드라든가 플롯 그리고 코미디의 내부 깊숙이 들어 앉은 삽싸름한 맛이 부족해서이다. 너무 가벼워 불면 날아갈 정도의 「재미」있는 영화로 보면 된다.

래드사 작품으로 등급 R.

바스락 소리만나도 「정사사절」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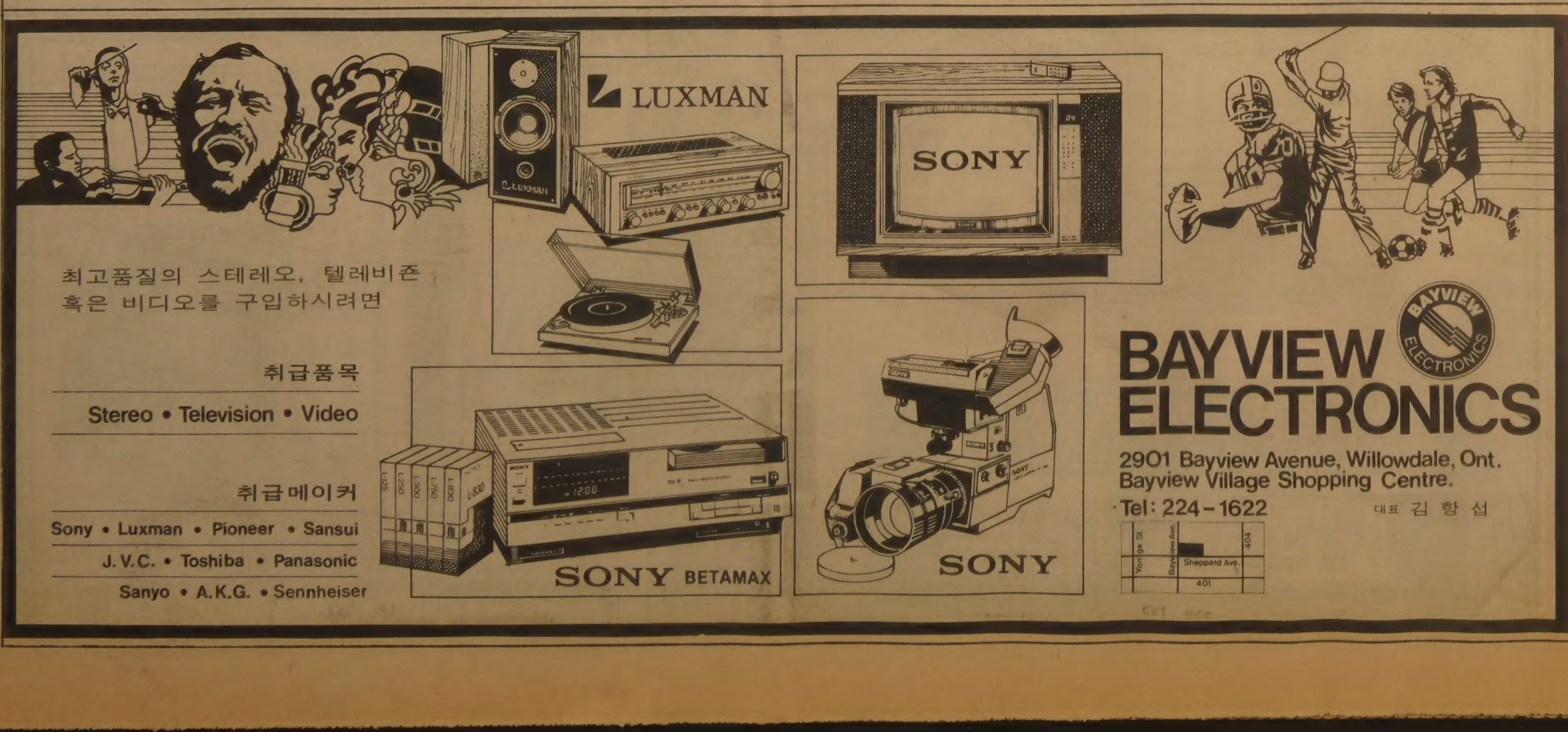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韓·日議員聯총회 延期

한국側 各黨대표 幹部會議서 결정

日의 檢定시정등 銳意주시
約束 2개월後인 12월初로

韓日의원연맹의 한국측의원단은 오는9월7일부터 2일간 日本東京에서 열릴 예정이던 同聯盟의 年次합동총회를 12월로 연기하기로했다. 한국측의원단은 31일하오5시 李載灐회장주재로 각정당대표로구성된 회장단·副간사장·상임간사등이 참석한가운데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및 이에대한 日本정부의 是正방침에 대한 각黨의 黨論을 토대로 총회참석문제를 논의한 결과, 「日本측의 조치가 未洽하고 앞으로 2개월안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 檢定기준을 지켜보기위해」 東京총회를 국회예산심의가 끝나는 12월3일이후로 연기시키기로 최종결정을 내리고 이를 日本측에 통고하기로했다.

日側에통고…早速是正위한 접촉은 계속

이날 간부회의는 民正·民韓·국민당등 주요정당이 30·31일 이틀간 확정한 黨論을 토대로 총회참석여부, 연기할경우의 시기문제, 日本교과서 검정지침서작성에 반영시킬 우리측입장등에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후 이같이결정했는데 日本정부가 앞으로 2개월내에마련키로되어있는 검정지침서에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키기위한 접촉은 계속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또 日本정부의 검정지침서 작성이 끝나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후인 12월3일이후로 총회를 연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은 日本측과협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民正黨은 이날상오 당직자회의를 갖고 東京총회참석문제를 협의했는데 이번 총회를 연기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金鎔泰대변인이 밝혔다. 民正黨은 1일상오 중앙집행위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黨論으로 최종확정한다.

이날 金대변인은 『총회의 연기시한은 2개월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韓日의원연맹의 사회문화분과위 또는 교과서小委등의 접촉은 계속하게된다』고말했다.

民韓黨도 이날상오 黨務회의를 열고 日本이 교과서 歪曲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힐때까지는 東京총회에 참석지않기로했다.

民韓黨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日本교과서왜곡문제에대한 日本정부발표는 도저히 우리국민들로서는 납득할수없으며 이러한 부당한 일본정부결정과 성명에 이를 받아들인 우리정부방침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수없다』고 결의했다.

"歪曲시정 即刻실천을"

外務部, 駐韓日公使불러 後續조치 촉구

정부는 31일 일본의역사교과서 歪曲과 관련, 일본정부가 지난26일 약속한歪曲부분의 시정조치를 즉각 실천에 옮길것을 일본측에촉구했다.

崔東鎮 외무부 亞洲국장은이날상오 고또오(後藤利雄) 駐韓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지난26일 발표된 일본측의 회답은 문제해결의 기본원칙만을 천명한것으로 歪曲시정에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진정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 『문제의 열쇠는 일본측의 신속하고 성실한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있음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조속한 약속실천을 촉구했다.

崔국장은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일본은교과서 檢定기준을조속히 개정하고 그내용을통보해줄것▲이미검정이 완료된교과서 (83년사용분)의 改正檢定절차를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마련하고 검정기간도단축시킬것▲經過조치로서 취해질 現場교육指針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내용을 통보해 줄것등을요구했다.

이에대해 고또오공사는「한국정부가 이문제에관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銳意注視하고 있다는점을 留念하여 일본정부는 성심성의를다해 조속히 시정작업에착수코자한다」면서『구체적 후속조치에 관한 한국측의요망을 본국정부에 충실히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우리정부는 교과서 歪曲에관한 해결방법으로 일본이 是正약속을 명백히 할것과 시정조치를 신속히 실천에 옮길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본이 이미 시정약속은했지만 아직 시정작업에들어가지 않고 있어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교과서 歪曲을시정하기위해▲82년9월 文部省이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검정기준개정을위한 諮問과 문제가된 83년도 사용분의 개정검정을위한 告示및 교과서 발행자등은 原稿本작성준비▲83년 4월부터 84년 3월까지 검정실시▲84년 4월부터 8월까지 교과서 (見本) 전시회, 지방자치 단위별 교과서채택, 교과서 총수요량 결정▲84년9월부터 85년3월까지 교과서 제작공급▲85년4월부터 사용개시등의 日程을 마련하고있다.

8·15이후歪曲도 是正 요구하기로

정부는 31일하오3시 鄭泰秀문교차관주재로 외무 문교 일본문제 관계자회의를열고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시정요구자료를 정리하는 문제에대해 협의했는데 이자리에서는 일본교과서중 근대사의 한국침략사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8·15이후의 현대사에대한 내용중 왜곡표현부분도 가려 시정요구키로했다.

정부는 이번주안으로 「시정요구안」을마련, 외무부를통해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전달키로했다.

歪曲시정 小委를 對策特委로 强化

韓日의원연맹은 31일 하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현재 사회문화분과위내에 설치되어있는 일본역사교과서 歪曲시정대책小委를 대책特委로 格上강화하고 위원수도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特委는 앞으로 일본측 特委와 회합을갖고 일본정부가 2개월내에 마련키로 되어있는 교과서검정지침과 내년4월까지 시달케 되어있는 지도지침서 문제등에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全대통령 오늘下午 歸國

캐나다出發聲明
"協力幅 무한한可能性 확인"

◇사흘간의일정으로캐나다를 공식방문중인 全斗煥대통령과 피에르·트뤼도캐나다수상이 30일 오타와의 트뤼도수상 집무실에서 韓·캐나다頂上會談을 갖고있다. 【오타와30日 AP電送=聯合】

【오타와=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31일 상오(한국시간 1일새벽) 15박16일간의 아프리카 4개국과캐나다 공식방문일정을 모두마치고 오타와 空軍基地를 출발, 귀국길에 올라 1일하오(한국시간) 서울에 도착한다.

全대통령은 5個國 순방에서 각국의 국가원수및 수뇌와 일련의 頂上회담을 갖고 정치·경제·문화등 각분야에 걸쳐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논의, 기존 友好관계를 더욱 돈독히다졌다.

全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출발에 앞서 성명을 통해『오랜기간동안 友邦 캐나다와 우호협력관계가 끊임없이 확대발전해온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세기동안 두나라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시킬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곳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돌아간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대자연에 挑戰해 발전되고 풍요한 나라를 건설한 캐나다인들의 강인한 의지가 온갖 시련을 헤쳐온 한국민들의 굳은 신념과 결합할때 우리의 태평양生活圈은 평화와 번영을구가하는 樂園을 반드시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총독관저로 슈라이어총독내외를 고별예방하고 선물을 교환하는등 惜別의情을 나눈뒤 슈라이어총독내외와 함께 오타와공군기지에 도착, 환송행사에 참석했다.

全대통령내외는 환송나온 공군기지사령관내외, 바뮤어駐韓캐나다대사내외, 아미오의전장내외와 작별인사를 하고 슈라이어총독과함께 특별기앞에 줄을선 의장대사이를걸어 트랩아래서 슈라이어총독과 마지막석별의정을 나누고 특별기에 올랐다.

한편이에앞서全斗煥대통령은 트뤼도首相과의 頂上회담을 마친후 30일낮 (현지시간) 트뤼도수상이 수상관저에서베푼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서 全대통령은 韓·캐나다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축배를 제의하면서『작년9월 트뤼도首相의 訪韓과 이번 본인의 캐나다 방문은 兩國 국민사이에 우호와협력을 더욱 굳게 다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본인과 본인의 수행원들에게베풀어준 따뜻한환대에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고 말했다.

政策協 구성
韓·加外相합의

【오타와】李範錫외무장관은 30일하오 (한국시간31일새벽4시30분) 캐나다의맥기건외상과 외상회담을갖고 太平洋 정상회담의 개최문제등 구체적인양국간의공동관심사에관해 폭넓은 의견을교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외상은 全斗煥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보다 확대, 강화하고 방문성과를 높이기위해 제반 협력관계를 협의할 韓·캐나다정책협의회를설치키로합의했다.

駐韓美軍司、北傀에
화이트一兵面談요청

주한미군 사령부는 31일 휴전선에서 실종되어 북괴에 억류돼 있는 조세프·T·화이트일병(20)의 면담을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괴측에 요청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북괴가 「화이트 일병의 정치적 망명」을 주장한데 대해 그의 진의를 확인하기위해 직접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북괴측은 이날하오까지 이에대한 응답을 하지않고 있다.

내아들은被拉
화이트父母회견

【세인트루이스AP=聯合】지난 28일새벽 실종된후 북한에억류돼있는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인 조세프·T·화이트 일병(20)은『北傀로 탈출한것이 아니라 포로』라고 그의 부모가 30일 밝혔다.

화이트일병의 부모인 노벨·화이트부부는 이날 세인트루이스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우리는 아들이 그를 선전목적에 이용하려는 북괴에 의해 붙들려간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화이트일병의 부모는 기자들에게 그의 아들이 북괴에 붙들려갔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아들의 편지 한통을 보여주었다.

지난8월20일 친구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는 화이트일병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는 흔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화이트일병의 어머니는『내아들을 북으로 넘어가게 만든것은 총이었을 것』이라면서『아들은 애국적인 청년』이라고 덧붙였다.

沈 前全北大총장 金총리、훈장수여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31일 停年퇴임한 沈鍾燮前全北大총장과 姜永善前江陵大학장에게 대통령을 대리해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했다.

金총리서리는 또이날 세계知的所有權기구 클라우스·파사무차장에게 修交훈장 興仁章을 주었다.

한국일보社 3千萬원·任職員3百萬원

獨立기념관建立募金에 온國民의 뜨거운參與를

어제부터 接受

◇보낼곳
本社 事業部및 各支社·普及所

美여객기에 時限폭탄
한국選手團 危機一髮

마이애미→브라질… 不發로 無事도착
世界프레排球참가길…청소부가 發見
李榮宣선수 座席밑에 장치
日선수등도탑승…2백여명

【상파울루=聯合】제9회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이 탑승했던 美國팬암사소속 보잉747여객기에 시한폭탄이 장치됐었으나 불발, 대참사를 모면한 사실이 뒤늦게밝혀졌다.

이비행기는 지난24일밤11시(마이애미시간) 한국과 일본선수단등 2백여명을 태우고 마이애미공항을 출발, 다음날상오10시 (현지시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도착할예정이었다.

이곳 신문들에의하면 시한폭탄이 장치된 곳은 23열 A석으로 한국의 李榮宣선수가 앉았던 좌석으로 밝혀졌다.

한국선수단은 부친(한일합섬前회장) 상을 당한 단장 金重源씨 (배구협회부회장) 대신 十哲圭 부단장 (한일합섬전무) 의 인솔로 지난 18일 서울을 출발,뉴욕을거쳐 19일 (한국시간) 마이애미에 도착했으며 21,22양일간 (한국시간) 이곳에서 日本및 美國팀과 친선경기를 갖고 25일 하오1시 (현지시간 24일밤11시) 日本팀과 함께 대회지인 상파울루에가기위해 팬암사소속 보잉747기에 탑승했었다.

이곳 경찰은 이 시한폭탄이 예정대로 폭발했다면 이륙한뒤 2시간후인 카리브해 상공이었을 것이나 시한폭탄의 구조적결함때문에 불발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시한폭탄은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후 기내청소를 하던 청소부에 의해 발견됐는데 현재 美國의 FBI와 브라질경찰이 합동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선수단명단
▲단장=金重源(배구협회부회장)▲부단장=十哲圭(한일합섬전무)▲의무=宋奋山(오로공사감독)▲감독=張鍾述▲코치=田好寬

▲선수=金英淑·李恩敬·金貞順·南明禮·鄭仙姬·金松壎(이상현대)·郭宣沃·李云任·韓敬愛(이상미도파)·李榮宣(호남정유)·陳春梅(선경합섬)·朴美姬(광주여상)

한국選手團 놀라

한편 자신들이 탔던 비행기에, 시한폭탄이 장치됐었다는 소식에 韓國선수단은 아연실색,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韓國선수단은 『비록 폭탄이 밝혀진 사실이지만 폭탄이 폭발했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끔찍하기만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그같은일을생각하기조차싫다』고말했다.

"事業所得稅인하 올해부터"

地方商工人들 건의

정부의 6·28및 7·3경제조치를 보완해 나감에 있어서 지방상공인들은 法人稅率인하에 있어서 금년사업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할것과 低所得층의 소득세율도 인하조치해줄것을 건의하고 있는것으로 民正黨이 31일 밝혀졌다.

民正黨이 그동안 각市道별로 가진 경제조치에 관한 담화내용을 종합한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법인稅 인하로 인해 稅收결함을 中小기업이나 근로소득자에게 전가하지 말고▲金利정책에 있어서 중산층의 재산증식을 가능케하는 조치를 배려하며 ▲中小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것등도 주장했다.

社会漫評

地平線

이른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은 1923년9월 1일 상오11시58분이며, 이 지진은 마그니튜드 7·9의 강도로서 일본에서 인구밀도가 가장높은 심장부를 강타한 나머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내었다. 사망자는 근10만명이 넘어섰고 동경에서만 6만명이 넘었다.▼관동지진은 지진의 규모로서는 대단한것이 아니었으나 그 피해는 엄청나서 이재민만도 3백40만명을헤아렸고 가옥파괴가 56만7천여호이며 재산피해는 당시의돈으로 45억7천만엔이니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된다. 그래서 일본인은 이날을 유례없는 天災의 날로 해마다 기억을 새롭게한다.▼하나 그때부터 우리한국인은 이날을 人災의 날로 상기해야한다. 그때 일본에는 약10만명의 교포가 살고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살길을 빼앗긴 노동자들이었으며 소수의 유학생들도 끼어있었다. 일본의 집권층은 계엄을 선포하여 그들의 천재지변을 국내외에서 팽배했던 우리들의 독립운동을탄압하고 제국주의적 야욕의 성취미끼로 써먹었다.▼우선 일제는 계엄을 편후 관헌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삽시간에 유포시켰다. 동시에 우리동포들을 일본군경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경단에 의해 죽창 일본도 엽총등으로 마구 학살되게 했다. 우물에 독을 탔고 방화, 폭행, 약탈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이렇게해서 4일간 학살당한 교포의 숫자가 일본측 공식기록에는 2백31명으로 되어있으나 양심있는 일본인이추산한 실수는 약 그 10배가 넘을것이라는것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정확한 숫자를 알 도리조차 없게되었지만 어쨌든 당시의 일본은 이처럼 우리교포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아 재난기의 국내문제 혼란을 수습하려했다.▼이보다 앞선 1919년의 3·1운동당시 전국적인 규모의 독립투쟁에서 희생된 동포의수가 7천5백명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관동대지진에서의 일제학살이 지니는 의미는 헤아리고 남게한다. 이런 사납고 모진 일제의 간교는 1931년의 만보산사건과도 맥락을같이하여 멈출줄 모르다가 마침내 패망의 구렁텅이로 급전직하였다.▼오늘 관동대지진후 59년만에 처음으로 억울한 넋을 달래는 진혼의행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거행된다니 새삼 옷깃을 여미게된다. 우리는 이제라도 그때 그 참상의 실체를 보다 정확한 사실로 밝혀 정립하여 위령의한 구심점으로 삼고 다른한편 예나다름없는 일본의 심성을 바로 이해하는 길잡이로 삼아야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창립 제15주년 기념
(세계적복음성가솔로리스트)
김윅스초청음악선교집회
시일 : 9월11일(토) 오후8시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영어)
9월12일(일) 오후8시
(성인들을 위한 집회—한국말)
장소 : 한인장로교회
(DAVENPORT RD. & OAKWOOD)

3세때 6·25전쟁 포화로 실명
대구 고아원에서 9세때 미국 입양
힐튼 고등학교, 인디아나주립대학, 대학원
성악전공,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박사과정 수학
현 킴 세계선교회 회장,
빌리그래함 전도단 솔로리스트

노래하는 천사 김윅스—그녀만큼 미국에 널리 알려진 한인 성악가가 누가있으랴?.
빌리그래함 목사가 그의 노래를 듣고 감동되어 특별 솔로리스트로 집회때마다 그의 간증과 찬양을 부르게 하여 지금도 빌리그래함 전도 집회에서 천사의 음성으로 참석자들의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는 생명을 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못 보는 소경. 그러나 그의 생명은 오로지 복음전파를 위하여………
가슴을 울리는 그의 간증과 음악을 들으러 오십시요.

太平洋국가 共感帶다져

——全대통령 캐나다방문 決算

전통적유대·友好 재확인

經濟협력 內實증대 계기

全斗煥대통령의 이번 巡訪중 아프리카 방문이 韓·阿협력시대의 開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캐나다방문은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높여놓는 轉機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평가할수 있다。

과거 캐나다는 대한민국을 제일먼저 승인한 나라중의 하나였으며 6·25동란때는 2만6천여명의 젊은이들을 派兵, 5백16명의 고귀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수호한 血盟이기도 하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지난 10년동안에 交易量이 무려 15배나 증대되어 81년말현재 10억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한햇동안만해도 경제및 기업관계인사들을 주축으로 1만명의 캐나다인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70년대초만해도 幾千여명에 불과했던 캐나다의 僑民이 이제는 5만명에 이르러 캐나다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있으며 원자력발전소건설등을 통한 기술자원·금융등의 협력에 내실을 증대해 가고있다。

따라서 양국간에 정치·외교·경제적인 현안이 없으며 전통적 유대와 기존우호관계를 확대심화하여 태평양국가로서의 공감대를 더욱 굳히는 문제만이 당면과제로 부각돼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작년9월 트뤼도수상이 방한한데 이어 이번에 全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함으로써 기본우호관계를 더욱 굳히고 두나라국민간의 이해를 한층 증폭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31일에 있었던 全대통령과 트뤼도수상간의 정상회담은 1시간예정이 2시간으로 늘어나 양국원수의대화가 얼마나 밀도 있고 진지했는가를 엿볼수 있다。

트뤼도수상은 회담이 끝난뒤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통상증진방안에 대한 정상회담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해 두나라정부가 제시한 議題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됐으며 의견이 상당히 접근됐음을 암시했다。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내용은 밝혀지지않았으나 트뤼도수상은 全대통령이 제시한 태평양정상회담構想에 원칙적인 贊意를 표명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뤼도수상은 국제적인 감각이 예민한데다 외교적 수완이 능한 정치인으로 定評이 있어 태평양 정상회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있다。

경제문제에 관해선 대체로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이 제의한 한국産 섬유, 신발, 가죽제품의수입규제완화, 캐나다 沿岸에서 조업할수있는 漁業협정의 체결, 캐나다 鑛物資源개발에 대한 참여문제등이 앞으로 관계실무자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캐나다측이 제시한 캔두原子爐, 통신및 그리고 밀(小麥)의 對韓판매요구도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로 한것같다。

우리측의 한 외교소식통은『캔두원자로를 추가도입할경우 다른型의 원자로를 들여올 때 필요한 부대시설 7백여원을 절약할수 있고 濃縮우라늄이 아닌 天然우라늄을 사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기술의 이전이 가능한 점들의 장점이 있지만 인는 관계기관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밀도 연간2백60만톤을 美國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産도입에 어려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외교領域의 확대, 市場의 多邊化, 資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발전시켜볼 가치가 充分히 있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경제 自立노력에 캐나다가 적극협조해 줄것을 요청한 全대통령의 제의에 트뤼도수상이 공감을 표시한 것도 주목할만한일이다。

全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얻은 韓·阿공동개발협력과 이와관련한 우리의 아프리카 경제진출에 강력한 활력소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종래에 대서양국가쪽에 섰던 캐나다가 앞으로는 태평양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全대통령의 방문을계기로 깊어진상호인식이 底邊으로 새로운협력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그밖에 캐나다에 거주하는5만에 가까운 僑民들에게 國가원수가 직접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준것도 이번 캐나다방문의 빼놓을수없는 성과중의 하나라고하겠다。

17일동안 4만6천65㎞를 근50시간 비행하면서 지구를 비스듬히 한바퀴 돈 이번 全대통령의 아프리카 캐나다순방은 또다른측면에서 제3세계의 우리의 교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여 한국의 주체적이미지를 확산하는데 크게기여했다。【오타와=尹國炳특파원】

◇캐나다를 방문중인 全斗煥대통령이 30일밤 그의 방문을 환영하는 공식만찬도중 에드워드·슈라이어총독과함께 건배를들면서 미소짓고있다。全대통령의 왼편에 총독부인 릴리·슈라이어여사, 슈라이어총독 오른편에 李順子여사가 축배를 들고있다。【오타와 31日 AP電送=聯合】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 캐나다

和氣애애한 晩餐 3시간

엘女王위한 祝盃 제의도

「훌륭한演奏」치하

○…슈라이어 총독내외가 30일저녁(한국시간 31일상오) 총독관저 볼룸에서 全대통령내외를 위해 베푼 공식만찬은 트뤼도수상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인사들이 두루 참석한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약3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全대통령내외가 슈라이어 총독내외와함께 먼저 리셉션룸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있던 양국의 만찬참석자들은 박수로 맞았고 이어 全대통령내외를 중심으로 총독내외가 양편에서서 사진기자들을위해 잠시 포즈를 취했다。

양국元首내외는 이어 리시빙라인에 서서 만찬참석자들을 일일이 악수로 접견한뒤 全대통령과 슈라이어 총독, 令夫人과 총독부인, 트뤼도 수상의順으로만찬장에 입장, 헤드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兩國元首와 참석자들은 만찬에들어갔는데 메인코스가 시작되기전 슈라이어 총독은全대통령을 위해축배를제의했고全대통령은 이를 받아 캐나다 女王(엘리자베드 英女王을 指稱)을 위해 다시 축배를 제의, 일제히 잔을들었다。

만찬이 끝나자 슈라이어 총독은 太平洋 연안국가로서 동반자적 협력을강조하는만찬사를했으며全대통령은韓·캐나다血盟의 우의를 존중하자는 내용의 답사를 해 참석자들의 공감을얻었다。

양국 원수들은 이어 피아노 독주를 감상했는데 全대통령은 훌륭한 연주를 해준 크리스티나·패트로스카·버레진여사를 잠시 치하하기도 했다。

양국元首는 마지막으로 만찬장옆 별실로 자리를옮겨 차를마시며 잠시환담을 나눈후 만찬장을 떠났다。

總督내외등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30일 하오 (한국시간 31일아침) 숙소인 총독관저 리셉션룸에서 令夫人 李順子여사및 슈라이어 총독내외와 함께 20여분의 駐오타와 각국대사내외를 접견, 자신의 아프리카순방및 트뤼도수상과의 정상회담등에 관해 환담했다。

豫定시간 2倍넘겨

○…30일상오 (한국시간 30일밤) 캐나다수상실에서 열린 全斗煥대통령과 트뤼도 캐나다수상과의 정상회담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돼있는 회담시간을 2배이상 넘겨가며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

이날의 회담내용은 일체 밝혀지지않았으나 全대통령의 태평양정상회담구상과 양국의 경제협력문제 그리고 국제정세전반에대해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숙한의견교환이 있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회담관계자는 두나라 정상간에 2시간여에 걸쳐 太平洋정상회담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대단히 진지하고 격의없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상당부분에 인식과 의견을 같이한점을 시인했으나 『외교기밀에 관한 문제이므로 회담내용은 밝힐수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이날회담은 상오10시부터 1시간동안진행되다 11시부터 12시까지 확대회담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단독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이나 더길어져 낮12시가까이까지 감으로써 양국정상이 참석한 확대회담은 15분정도밖에 하지못했다。

全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을 마친뒤 확대회담에참석、인사말을 통해『기존관계의 강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혈맹우방으로서 더욱 우호관계를 증진해나가자』고 다짐하고 『상호교환방문을 통해 우리 양국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트뤼도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전반에 대해 잠시간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고 트뤼도수상의 경륜높은 국제정세관을 듣고 큰감명을받았다』고 인사。

이에앞서 트뤼도 수상은 인사말에서『빠른 시일안에 답방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연뒤 『全대통령과는 긴시간동안 東西진영문제를 비롯,국제정세전반과 빈부국의 남북문제등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말했다。

35명의 老兵 격려

○…全斗煥대통령은 30일상오 (현지시간) 오타와시중심가 연방광장에있는 전쟁기념비에 헌화했다。

미리 대기해있던 라 몽타뉴 캐나다국방상의 영접을받으며 기념비앞에 도착한 全대통령은 48명으로 구성된 군악대의 연주속에 96명으로 이뤄진 의장대를 사열한뒤 기념비에 노란색 묶음의 화환을 헌화했다。

진혼곡이 광장에 울려퍼지는 가운데 묵념을 마친 全대통령은 기념비 왼쪽에 도열한 루·푸르마 캐나다참전용사 연합회 회장(당시 상사·臨津江전투참가)의 거수경례를받은뒤 35명의 노병들과 일일이악수를 나누며 이들을 격려했다。【오타와=尹國炳특파원】

메아리

失名路

『똑바로 가다가 첫번째 길에서 오른쪽으로 꼬부라져 첫번째、말고 두번째신호등 앞에서 왼쪽으로 다시 돈뒤에 네거리가 나오면…』

어쩌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적마다 운전사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이것은 제집 찾아가는 것이니까 헤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전화로 자기집의 위치를 가르쳐줄때는 난감해진다。『X번 버스를 타고 종점 못미쳐 X번째 정류장에서 내려 학교건물을 향해 한참 가면 다리가 나오는데… 아유,그러지 말고 택시를 타고 근처에 와서 X약국을 찾아 우리집을 물어보면 안다。다 알아』

약국이 무슨 길 가르쳐 주기 위해 세금내고 있다던가。서울에서는 「근처에 와서 물어보라」가 모든집의 주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가나 도무지 주소만 가지고는 집을 찾을수가 없다。까닭은 길은 있으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어제 아침 朝鮮日報에 崔禎鎬교수가 길에 이름을 붙여 역사교육을하자고 쓴 글은 공감이 간다。

서울의 경우、이름이 붙은 길이 물론 없는것은 아니다。 1966년에 街路명칭제정위원회규정이 처음 생겨 이해에 46개의 길에 이름을 붙여준 이래 현재 1백60개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路幅 4m이상짜리의 길은 全長이 6、689㎞이고 이 가운데 가로명이 정해져 있는 길은 717㎞에 불과하다。 10분의9가 無名路다。

그나마 이름이 정해진 길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사이에 흔히 이름이 불리는 길은 鍾路、乙支路등 20개미만이고 나머지는 그런 길도 있었던가싶은 이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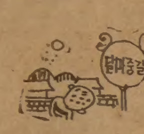
崔교수가 부러워한 파리의 경우、길이란 길、네거리란 네거리는 반드시 이름이 있다。이 이름이 모두 6천3백개가량 된다。자동차길뿐아니라 집이 단한채뿐인 막다른 골목도 다 名板을 길모퉁이 벽에 붙여놓고있고 게다가 번지가 정연하여 지도 한장만 들면 근처의 약국에 묻지않아도 혼자 쉽게 찾아갈수 있다。파리만 그런것이 아니라 歐美각국에서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가도 마찬가지다。

8백만인구의 서울이 길이름 하나 정비되어있지않아가지고야 대도시의 체모가 아니다。 온 시민을 길거리에서 迷兒로 만드는 이失名의 失手는 분명히 日政의 잔재다。

서울같이 길이 무질서한 도시에서 어떻게 길마다 命名을 할수있느냐고 할른지 모른다。 往十里 달동네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에 이름 한번 붙여봐라 할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永東이나 汝矣島같은 신개발지역의 시원시원한 길들에는 作名家가 없어서 이름을 못지었느냐고묻겠다。그리고 달동네의 좁은 언덕길에 하다못해「달마중길」이라는 팻말 하나 꽂아나를것도 없다。

또 어떤사람은 정해놓은 이름도 제대로 불려지지 않는데 자꾸 이름만지어무엇하느냐고 할는지 모른다。하지만있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것은 모든길에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일부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다면 사람들은 서로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될것이다。



金聖佑<編輯委員>

길이름을 짓기위해 서울市에서는 街路名制定 자문위원을 각계에서 위촉해 놓고있다。파리에서는 市議會가 이름을 정한다。새길에 이름을 붙이는것이아니라 옛길도 자꾸 새이름으로 바꾼다。

이때 바꾸어놓는 이름은 대개가 얼마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져간 인물의 이름들이다。반드시 전직대통령만이 아니다。78년 새로 改名한 파리의 두광장은 샹송가수 모리스·슈발리에와 에디트·피아프의 이름을 붙인것이었다。

서울市가 정해놓은 1백60개의 가로명중 역사상의 인물에서 이름을 딴것은 世宗路、忠武路등 단 9개밖에 안된다。

프랑스에서는 어느분야에서나 일가를 이룬 인물치고 길이름 하나 안가진 사람이 없다。문호 빅토르·위고와 정치가인 레옹·강베타、장·조레스의 이름을 딴 길은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나 반드시있다。

우리에게도 일일이 못다 세우는 동상보다 길이름으로 기념해야 할 인물이 얼마든지 있다。그런데도 길마다 이름자리가 비어있다。

JAL사고、機長피해妄想탓

日·蘇戰서 패배"…自殺企圖

지난2월 24명의 사망자를 낸 JAL機추락사고는 정신분열증의 기장이 日·蘇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망상에서 자살을 기도했기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산께이(産經) 신문은 31일 지난4개월동안 가따지리기장의 정신상태를 정밀검사해온의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결국 기장의 형사처벌도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르면 5년전부터 정신분열증세를 일으킨 가따지리기장은 日·蘇전쟁발발의 피해망상에 젖어있었는데 마침 사고당일『전쟁이 엄세에몰려 죽지않으면 안된다』고 확신,엔진을 역분사시켜 자살을 기도했다는것。

이같은 의사단의검진이 인정될경우 JAL승무원관리실전문의사의 형사책임은물론 JAL자체의 과실책임도 문제화될것이 틀림없다。【東京=聯合】

海外토픽

死者의 허파 이식

★加서、手術결과 안정상태

캐나다의 터론토종합병원의료팀은 최근 죽은 사람의 오른쪽 허파를 미국인환자에 이식하는수술을 실시했다고。조지·프란젠 (31) 이란는 환자에 대한 이번 허파이식수술은 30명의 의사가동원돼 6시간 반동안실시됐는데 병원대변인은『환자는 현재 위독하지만 안정상태에 있다』고 수술결과를 설명。

이번수술은 한쪽 수술실에서 허파제거수술이 실시됨과 동시에 다른 수술실에서는환자에대한 이식준비 작업이진행됐다는것。【터론토=UPI】

百여명이 同性연애

★英王室、엘女王도反對안해

엘리자베드英여왕의경호실장이 최근 동성연애사건으로 사임한데이어 왕실직원 1백여명이 동성연애를 즐기고있다는소문이 자자하게 나돌고있다고 런던의 선紙가보도。

선紙에 따르면 英왕실에는 동성연애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며 3백여명의 왕실직원중 1백여명이 이조직에 가담하고있다는것。

더우기 여왕자신도 직원들이 동성연애를하는경우 결혼을하지않고 외출이적으며 가족적유대관계로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장점이있기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해 싫어하지않는다는것。【런던=UPI】

江青 처형안해

胡耀邦밝혀

【北京31日AFP=聯合】 文化혁명기간중 정권을 탈취하려던 혐의로 작년에 2년유예사형 선고를받고 복역중인 毛澤東의처 江靑은 유예기간이 끝난후에도 처형당하지는 않을것이라고 胡耀邦당주석이 31일 말했다。

日歷史왜곡 "戰後 후유증"

【로스앤젤레스=聯合】 2차대전이 끝난지 근40년이지났는데도 일본은 전쟁의 후유증을 떨쳐버리지못하고 그기억을 끈질기게 정치·외교、심지어는 교과서에까지 담고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즈紙가 29일 보도했다。

「無誠意」에 一鍼

韓·日議聯 東京총회延期통고 배경

輿論의식…強한 不滿 표시

親韓派배신도 作用…노력없으면 流産될지도

韓·日의원연맹이 오는9월7일의 東京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것은 한마디로日本의 역사교과서 是正약속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볼수있다。

日本이 잘못을 깨달았다면 즉각 是正해야지 2년뒤에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금할수없다는것이다。

이는곧 일본의 역사歪曲에 여전히 들끓고있는 국민여론의 일면을 의원외교에서 반영한셈이 된다。

정부당국은 日本정부의 약속을「未洽하나마」받아들여 장래의 양국관계를 감안、양국간의 외교紛糾를 일단락 지었지만 熱火처럼 타오르던 국민감정은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기고있는게 사실이다。

각정당은 이러한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日本정부의 약속을 받아들인 정부의 입장을 전폭지원하기보다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조치를 취한것이다。당초日本의역사교과서 歪曲에대해집권당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정부와국민의 눈치를보아가며 愼重論을펴온民正黨이나 어떠한辯明이나前提보다무조건即刻是正이라는 강경대응책을 주장한 民韓 국민등 야당에서도 韓·日의원연맹 총회의「延期」라는 결론을 가져오는데는 나름대로 迂餘曲折이 있었다。

民正黨안에서는 총회의 보이코트주장은 없었지만 정부의 외교조치를 전폭적으로뒷받침해야하지 않느냐는 소수의견도 있었던반면 民韓 국민당에서는 보이코트주장이 한때 主流를 이루기도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마치서로 약속이나한듯「延期」쪽으로 결론을 내린것은 이들 각당이 스스로「敵前分裂」의 인상을 주지않고 서로 自制하여 超黨的으로 공동전선을 펴는데 이상이 없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 노력의 일단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議員외교가 단순히 정부공식외교를 뒷바라지하는 補助用이아니라 국민의사를 반영、구현하는 국민외교라는점을 反證한 계기도 된다。

한국측이 총회 延期결정을 내린데는 또한 지금까지 말로만 親韓、知韓을 외쳐왔던 일본측의원연맹이 왜곡파동에 사실상 傍觀자세를 취했는가하면 구성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것이 크게작용한것같다。

歪曲대목에 대한 한국측의 是正요구를「內政간섭」云云이라고 妄言을 했던 마쓰노(松野) 국토청장관을 비롯한 일본측의 強硬派들이 바로 연맹의 회원이었다。

그리고 평소에「親韓派」라고 말을 쓴 일부 自民黨의원들이 바로 歪曲파동의 主役이었다는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수없었던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한국의원단이 우르르 東京으로 몰려 간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감정적 분위기에서도 도저히 자리를 같이하고 얼굴을 맞댈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새陣容으로 출범한 韓·日의원연맹은 뜻하지않은 교과서문제로 첫시련을 맞은셈이다。

韓·日간의 문제가 있을때마다 그外交波長은 어김없이 의원연맹으로 번졌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解決의 열쇠는 日本의원들의 노력뿐이고 그들이 성의를 보일수있는 기회로 한국측은「2개월」이라는 시간여유를 주고있다。

즉 日本측이 검정기준을앞으로 2개월동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한국의 요구에 충실하게 반영하느냐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측 의원단은 이과정에서 日本의원단에게 한국의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是正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만일 이과정에서 日本측이 한국요구를 外面할 경우 의원연맹은「총회延期」이상의 膠着등 새로운 시련局面을 또다시 맞게 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총회 보이코트」라는 強硬處方대신「延期」라는 次善의 온건한 조치로 대응한것은 日本측에게 기회를 주고 대화의 窓口를 계속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측 요구에따라 일단東京총회는 年末로 예정되고있는데 만일 그동안 日本측이 만족할만한 성의를 보이지않을경우는 올해 東京총회가流産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것같다。

이번 歪曲파동을 계기로의원연맹은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고 운영면에서도 보다內實을 기해야할것이라는 소리가 높다。

『親韓派로 알려진 누구가 그럴줄 몰랐다』느니 하는얘기가 다시 나올 정도로 상대방 의원들을 몰라서는 안될것이다。

사실 그동안 韓日의원연맹 활동은 회의때 막연히「상황認識을같이하고 친선을 다지는」등 지극히의례적이고 형식적인면이 많았다。따라서 이번파동을 계기로 의원연맹은 활동에있어 양국 국민들이 원하고 생각하는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 매듭짓도록 해야할것이다。의원외교야말로 파티와 연쇄협상하는 정부차원의 외교가아니라 兩國民이 對話하는차원으로 발전시켜야할것이다。

日本교과서의 歪曲사실이 작년 의원연맹 서울총회에서 제일 먼저 지적되었다는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했지만 그때 서울총회에서 왜 주요爭點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느냐는 책임도 있는것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韓日양측은 의원외교에서도 새로운 자세와 다짐으로 임해야할것같다。【黃昭雄기자】

◇일본의 교과서歪曲是正에 대한 조치가 法治하다고 불만, 9월 東京총회의 연기를 결정한 韓日의원연맹 간부회의。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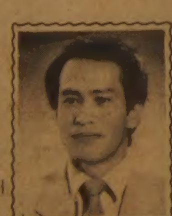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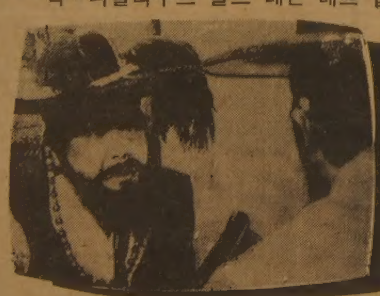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8900 채 성
〈R〉 (416)633-7892 (David Chae)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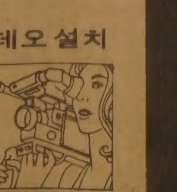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趙重勳씨 작년에 26億벌어

81년 所得랭킹 連2년째 1위、稅金만 13億원

2위 李義宰씨(將子鑛業) 19億

鄭周永씨 2위서 5위로 밀려

鄭熙永씨10위、國際 梁正模씨16위로 껑충

연예인은 李朱一씨 3천6백만원 最高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번 사람은 趙重勳 大韓航空(KAL)회장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해설참조)한 소득세납부실적(81년귀속)에 따르면 趙회장이 지난해 번돈은 26억3천만원, 낸세금은 소득의 49.0%인 13억4천1백만원으로 소득랭킹 1위를 차지, 지난 80년에 이어 2년째 수위에 올랐다.

趙회장은 하루평균 7백20만5천4백원, 한달평균 2억1천9백16만6천원의 돈을 번 셈이다.

2위는 19억2천4백만원을 벌어 10억2천1백만원의 세금을 낸 將子鑛業및일자표연탄 李義宰사장이 차지했다. 80년에 99위에 머물렀고 재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李사장이 랭킹2위로 껑충뛰어 오른것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많이 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위와 4위는 80년의 4위와 3위에서 자리를 바꾸었고 부자지간인 崔元碩東亞그룹사장과 崔埈文회장이 각각 차지했다.

現代그룹의 鄭周永회장은 80년 2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처졌으며 80년에 6위였던 鄭夢憲씨는 43위로 밀려났다. 18위와 19위에 올랐던 鄭世永씨와 鄭夢九씨는 50위권밖으로 밀려나 現代그룹 鄭씨일가의 소득랭킹은 모두 떨어졌다.

이밖에 三星그룹의 李秉喆회장은 20위에서 15위로 올라섰고 雙龍그룹의 金錫元회장은 14위에서 9위로, 鮮京의 崔鍾賢회장은 46위에서 14위로, 國際商事의 梁正模회장은 40위에서 16위로, 피어리스의 趙重敏사장은 248위에서 17위로 각각 뛰어올랐다.

◇81歸屬所得稅 大納稅者 (50位) 申告狀況 (단위 : 백만원)

순위 81	80	주소	성명	주된 소득발생처	직위	신고소득	납부세액
1	1	서울	趙重勳	大韓航空	회장	2,630	1,341
2	99	″	李義宰	將子鑛業·일자표연탄	사장	1,924	1,021
3	4	″	崔元碩	東亞그룹	″	1,762	912
4	3	″	崔埈文	″	회장	1,678	793
5	2	″	鄭周永	現代建設	″	1,663	938
6		″	郭慶培	都進實業	대표	1,260	770
7	10	″	徐成煥	太平洋化學	회장	769	363
8	7	″	崔鍾煥	三煥企業	″	665	315
9	14	″	金錫元	雙龍그룹	″	650	313
10	305	″	鄭熙永	現代綜合商事	주주	610	338
11	11	″	李健熙	三星物産	부회장	578	295
12	16	″	鄭相永	高麗化學	사장	577	299
13	22	서울	[illegible]	[illegible]	사장	570	270
14	46	″	崔鍾賢	(株)鮮京	회장	504	258
15	20	″	李秉喆	三星그룹	″	480	231
16	40	釜山	梁正模	國際商事	″	462	240
17	248	서울	趙重敏	피어리스	사장	461	251
18	42	″	[illegible]	(株)라이온	회장	449	286
19	17	″	[illegible]	크라운제과	사장	437	237
20	54	″	[illegible]	[illegible]	″	435	209
21	98	″	[illegible]	[illegible]	회장	427	212
22	36	″	[illegible]	[illegible]	사장	424	231
23	15	″	[illegible]	[illegible]	″	412	243
24	60	″	[illegible]	[illegible]	회장	412	223
25	23	″	[illegible]	[illegible]	사장	401	201
26	38	″	[illegible]	[illegible]	회장	400	195
27		″	[illegible]	[illegible]	사장	391	212
28	29	이리	[illegible]	쌍방울	회장	389	213
29	53	서울	[illegible]	[illegible]	사장	386	193
30	215	″	[illegible]	[illegible]	회장	385	181
31	31	″	[illegible]	[illegible]	″	379	174
32	85	″	[illegible]	[illegible]	주주	377	170
33	25	″	[illegible]	[illegible]	전무	371	173
34	47	″	[illegible]	[illegible]	사장	364	177
35	28	″	[illegible]	[illegible]	″	361	191
36	21	″	[illegible]	[illegible]	회장	360	164
37	75	″	[illegible]	[illegible]	″	352	159
38		″	[illegible]	[illegible]	사장	352	207
39	44	″	[illegible]	[illegible]	회장	337	163
40	70	″	[illegible]	[illegible]	″	333	193
41	32	″	[illegible]	[illegible]	사장	328	148
42		″	[illegible]	[illegible]	주주	328	190
43	6	서울	鄭夢憲	[illegible]	사장	327	174
44	158	″	申裕九	[illegible]	주주	317	142
45	63	″	[illegible]	[illegible]	사장	316	145
46	163	″	[illegible]	[illegible]	″	313	182
47	43	釜山	[illegible]	[illegible]	″	312	171
48		서울	[illegible]	[illegible]	″	311	182
49		″	[illegible]	[illegible]	″	311	182
50	24	″	[illegible]	[illegible]	″	310	138

勤勞者 초과근무 하루平均 1시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초과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계당국이 전산업의 1천4백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근로시간은 2백25.4시간으로 78년 2백44시간, 77년의 2백45시간, 79년 2백43시간, 80년 2백31.4시간에 비해 4년동안 19.6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근로시간이 2백25시간대로 떨어졌다고해도 이가운데 정상근로시간은 1백92.8시간이고 초과근무시간은 32.6시간에 달해 근로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굵직한財閥 왜빠졌나

20위大그룹 納稅50위안에도 랭크안돼

巨物제치고 2위浮上한 將子鑛業화제

○…돈이 많다고 반드시세금을 많이 내는것은 아닌가보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납세자의 리스트를 보면 재력과 세금과는 반드시 일치하지않고 있다. 1급재벌들이 납세실적이 시원치않은반면 무명의 신흥갑부들이 상위 납세자랭킹에 부상하고있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절세요, 나쁘게 말하면 탈세. 그때문인지 81년의 소득랭킹은 세무조사또는 사찰결과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재계랭킹 20위내에 드는 1급재벌들이 납세랭킹 50위내에 얼굴을 내밀지않은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아뭏든 럭키·大宇·韓一합섬·금호실업·斗山·코오롱·대한전선등 재벌그룹은 한국의 20대재벌을 대표하지만 대주주 혹은 경영자는 한사람도 고액납세자·랭킹에 끼어들지 못하고있다.

가장 두드러진 자리바꿈은 내노라하는 재계의 거물들을 밀어제치고 80년의 99위에서 2위로 뛰어오른 李義宰씨(65)」.

그는 65년부터 慶北에서 석탄광을 개발, 돈을 벌었으며 뒤이어 釜山에서 一字연탄공장을 세웠다. 李사장은 어느의미에서 국세청이 랭킹 2위의 영광을 부여했는지도 모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李사장에대해 세무조사를실시, 상당액의 세금을추징했고 그 결과 소득랭킹이 일약2위로 뛰어오르지 않았겠느냐하는 얘기도있다.

자유당때 치안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연각호텔 수산업 高麗證券 고려통상등을경영하고있는 李康學씨의 랭킹부상도 돋보인다. 李사장은 80년2백15위에서 30위로 뛰어올라 알부자임이 입증됐다.

3백5위에서 랭킹10위를 기록한 鄭周永 現代그룹회장의 사위인 鄭熙永씨는 現代綜合상사 사장으로있다가 80년 현대그룹에서독립, 鮮總해운을 경영하고 있다. 鄭씨는 現代綜合상사주주로서 지난해 6억1천만원의 소득을올렸다.

張여인어음사기극에 관련되어 1심에서 징역2년을선고 받은 私債업자 郭慶培씨 (都進實業사장)는 그간 私債거래로 많은돈을 벌었으면서도 稅金은 거의 내오지 않아 소득세 고액납세자랭킹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받아 숨겨진 세금이 드러남으로써 랭킹6위에 올랐다.

이밖에 랭킹권에 빠져있다 바닥권에서 ...

80년5위의 金鍾煥東洋건설사장, 6위 鄭夢憲씨, 9위 金俊起美隆건설사장, 12위 尹德珠씨 (湖油주주)、13위金相玟起亞産業사장등은 지난해 50위권밖으로 탈락했다.

가 이번에 새로 등록(?)을 했거나하위권에서상위권으로 뛰어오른 사람은 興明工業의 趙金杏錫사장, 東洋實業의 趙文周사장, 금진수산의 鄭淵泰사장, 대왕산업의 李國信사장, 국민서관의 文鍾敏사장등이 50위권안에 든 알부자들이다. 44위를 기록한(株)新星의 申裕九사장, 피어리스 趙重敏사장 (17위) 등도 급격히 부상하고있는 신흥재벌들。

그러나 지난79년에 무려1백57억원을 벌어 연3년째랭킹1위를 기록했던 鄭周永現代그룹회장이 80년2위에서 지난해에는 5위로 밀려났고 는 경기의 침체를 반영, 소득규모는 크게 줄어들었고 中東건설붐이 한풀간듯 건설재벌들의 퇴진도 두드러진변화중의 하나였다. 연2년째 랭킹1위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趙重勳大韓航空회장은 소득이 40%나 늘어 80년보다15억5천6백만원이 줄어든 26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또 80년에는 소득랭킹 20위안에 9명의 건설재벌들이 들어있었으나 지난해에는 5명뿐이었다.

해외건설붐이 한물간탓인지 건설재벌들의 소득도 폭 떨어졌다.

現代그룹 鄭회장가족의 아성도 무너지고있다. 80년에는 20위권안에 든 鄭씨일가가 5명이었으나 81년에는 鄭회장을 비롯, 사위인 鄭熙永씨가 10위, 동생 鄭相永씨 (高麗化學사장) 12위등 3명뿐이다.

李秉喆三星그룹회장은 20위에서 15위로 올라섰으며 아들 李健熙부회장은 2년째 11위를 차지, 私財를 재단에 출연한 金宇中(株)大宇회장은 50위권안에 들지도못했다.

78년까지만해도 소득격차가 컸던 東亞그룹의 崔埈文회장과 崔元碩사장父子는 79년부터 3년째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상위자리로 올라오다 작년에는 3、4위를 각각 차지.

의료업에서 제일 돈을많이 번 제일병원의 李東熙씨는 李秉喆회장의 친척이며 한때 『뭔가보여주겠다』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코미디언 李朱一씨는 연예인중에서 돈을 가장많이 벌었고 2위는 張美姬양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朴炳錫기자】

◇鄭周永씨

◇[illegible]씨

◇崔元碩씨

◇徐成煥씨

◇李朱一씨

◇職業別高額所得者名單 (單位 : 千원)

順位	姓名	비고	81年소득	80年소득
<醫療業>				
1	李東熙	제일병원	161,438	118,427
2	[illegible]	[illegible]	117,561	95,607
3	林大鉉	[illegible]	113,869	28,207
4	[illegible]	[illegible]	92,991	38,397
5	[illegible]	[illegible]	92,412	88,587
<辯護士>				
1	[illegible]	서울	46,200	13,090
2	[illegible]	광주	46,165	13,563
3	[illegible]	서울	42,168	29,280
4	[illegible]	부산	41,206	28,875
5	[illegible]	광주	38,723	—
<公認會計士>				
1	[illegible]	서울	18,982	8,218
2	[illegible]	″	17,440	15,473
3	[illegible]	″	16,126	10,887
4	[illegible]	″	15,359	12,426
5	[illegible]	″	14,439	11,605
<稅務士>				
1	[illegible]	대구	20,228	17,275
2	[illegible]	″	19,425	17,490
3	[illegible]	서울	17,924	2,399
4	[illegible]	″	17,359	6,557
5	[illegible]	″	16,103	1,606
<關稅士>				
1	[illegible]	서울	89,453	108,389
2	[illegible]	부산	77,899	85,412
3	[illegible]	″	74,953	90,008
4	[illegible]	서울	57,068	53,078
5	[illegible]	″	47,333	65,747
<辨理士>				
1	[illegible]	서울	15,809	13,126
2	[illegible]	″	14,746	12,631
3	[illegible]	″	11,392	3,749
4	[illegible]	″	9,350	5,100
5	[illegible]	″	7,820	6,460
<建築士>				
1	[illegible]	서울	97,296	77,242
2	[illegible]	부산	31,099	42,748
3	[illegible]	″	28,907	20,961
4	[illegible]	서울	28,860	28,860
5	[illegible]	″	26,562	21,451
<演藝人>				
1	李朱一		36,000	35,100
2	張美姬		28,350	22,429
3	丁允姬		27,850	29,150
4	具鳳書		27,000	14,895
5	李尹姬	유지인	26,141	33,710
<文藝人>				
1	金泳仲	조각가	35,636	28,303
2	李一英	조각가	31,217	9,429
3	金敵培	동양화가	18,364	1,050
4	金順玉	극작가(김수현)	18,111	10,796
5	金基昶	동양화가(운보)	17,400	11,550
<學院>				
1	文昌淳	시사영어학원	57,154	32,420
2	金東星	대구일신학원	24,408	△118
3	陳梓珖	부산서면학원	22,388	28,694
4	權英天	서울공평학원	22,000	15,561
5	朴贊世	대일학원	21,653	8,320

預金·積金담보貸出 月末까지 相計지시

韓銀、5개市銀등에

한국은행은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은행의 수지개선을위해 預金또는 積金을 담보로한 대출을 8월말까지 모두 相計 (담보로한 예·적금으로 대출금을 상계처리)하도록 5개시중은행과 외환은행에 지시했다.

25일 韓銀에 의하면 지난8월18일 불요불급한 대출의억제지시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지난 7월과 같은수준으로 증가하고있어 예·적금담보대출의 상계와함께 대출을 선별해서 집행하도록 거듭 촉구했다.

현재 시중은행이 대출담보로잡은 예·적금은 6·28금리인하이전에 연12~18%의 이율로 가입한것이 대부분이어서 은행수지악화의 큰원인이 되고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은 다음利子約期에 이율을 개서할때부터 인하된금리가 적용되나 예금 또는 적금의 금리는 당초 약정된 만기에 가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기때문에 금리가 크게 인하되면 은행은 대출에대해 낮은금리를 적용해야하는대신 예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높은이자를 지급하게되어 수지가 크게 악화된다.

韓銀은 『預貸相計와 대출억제를 각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아 支準不足을 일으킬경우 과태료를 부과할방침』이라고 밝히고있다. 그런데 5개시은과 외환은행은 과도한 대출때문에 만성적인 지준부족에 허덕이고있어 한은에서 자금지원을 해주지않으면 금방 지준부족이난다.

이조치에따라 상계될 대출금은 5백~7백여억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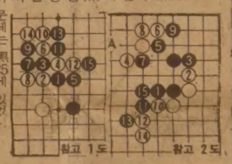
제14기 名人戰 3次預選 決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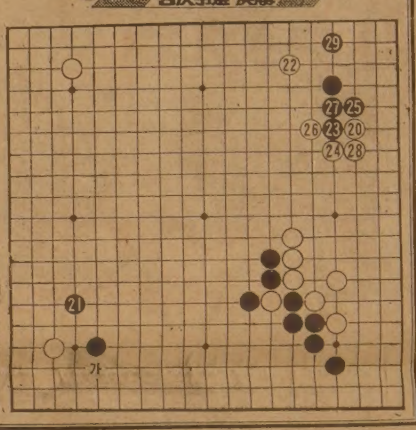
第1局 第4譜 20~29 (각4시간·덤5집반)

黑 盧永夏(7段) 白 洪鍾賢(6段)

白 主導權장악

종종異한 표현이지만 『지섬적인 바둑』이라는 평도 곧잘듣는 洪6단인데 오늘 이바둑에서는 행군대열이 때이르게 흔들린다. 하변대세력 작전에 집착하여 白20을 허락하고 형세가 약간 이상해진것은 그래도 黑21(이수는「가」에 붙일수도 있지만)로절호의 곳을 씌움으로써 공죄가 상쇄된것 같았는데 다음 우상귀 접충에서 거듭 이해키 어려운수를 두어버렸다. 하기야 黑21이면 白이 응수를 할줄 알고 귀를 한껏 공격하며 외곽을 더욱 견고하고 방대하게 구축할 심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白은 가령 참고1도처럼 직접 白2면 黑3이하 13로 축에걸려 낭패다. 따라서 白22는 그축머리에선 착하여 黑의 응수를 타진한것인데 黑23이 이때 상대의 강한쪽에 붙인수로서 당연하나 문제는 黑25에 있었다. 이수는 참고2도처럼 黑1이하15까지로 처리한 다음 黑「A」의 공격과 실전보의 黑「가」를 맞보는편이 간단명료했다는 중론이다. 더구나 黑29로 후수마저 끌어서는 白의 작전에 말려든격。주도권은 이제 白의 수중에 들어갔다. 白은 물론 좌하귀를 안정할 차례인데 과연 어떻게 둘는지。【一凡】


참고 1도 참고 2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4>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온 아이 ⑦

오목이네는 일환이의 손목시계말고는 시계가 없었다. 시계없이도 시간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햇빛조차 없었다。그래서 그곳의 시간은 흐르지않고 늘 질펀히 괴어 있었다.

다만 일환이의 귀가(歸家)、자신의 갑작스러운 허기증등에 의해 간간이 괴어있던 시간이 소용돌이를 일으킬뿐이었다.

벌써 초저녁도 아닌 늦은 저녁을 먹고 후리…이번의 소용돌이는 좀 심했다。가슴속까지 휘젓고 지나가는 것같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목이는 감정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그이 돌아올랑 아직 멀었어요。맨날 몽금직전인걸요。』

『정말 그 남편의 그 여편네구먼。해산비용 구하러 나갔다며?그런데도 그렇게 태평이니까 남자가 그 꼴로,굴지.』

『그이가 뭘 어떻게 굴었게요?』

『아유 몰라。해산비용 구하러나간 사이에 낳아놓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나가서 마중할때 돌아와도 웃는 낯으로 맞아들일텐데 뭐.』

안집 여자가 주먹으로 목장을 꽝꽝 두들기면서 방을나가 부엌쪽을 살펴보는지 덜그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유서방 들어오거든 잊어버리지말고 방내놓는 문제 상의하고…알았지?난 유서방 사정 어려운것만 알았지 성질이 그렇게 늘여터진 건 미처 몰랐어。방구하는것도 해산비용 구하는것처럼 그렇게 마냥부지하세월로 굼뜨면 나도 가만히 안있을거야。할멈이 미역국은 넉넉히 끓여놨구먼。자주자주 떠먹어。호강하며 산후조리할 형편아니면 뻔한데 축 늘어뜨리고 있어봤자 자기 몸만 축가。이제 한 몸도 아니잖아。두 몸인 걸 생각해야지』

『그러문요』

오목이는 마치 시들은 갈자처럼 작고 노리끼하고 조글조글한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힘주어 말했다。어떻거든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각오가 더운 피처럼 그녀를 기운나게했다。

여자가 부엌을 돌아 계단을 통해 오르기시작했다。부엌불 마자락이 보였다。혼자서 중치얼대는 소리도 들렸다。

『서방복 없는 여편네는 자식복도 없다더니。하필 팔삭동이를 낳을 게 뭐람』

오목이는 안집 여자의 그런말도 섧지않았다。아니, 그 여자가 한 말중에서 가장 쓸만한 말이었다。그 여자가 한 모질고 듣기싫은 말을 다 비겨주고도 남을만큼 좋은 소리였다。

『아가야。너는 팔삭동이란다。가엾은 우리아가。너는 팔삭동이란다』

오목이는 그지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미운 아기에게 이렇게 말을 시켰다。그녀는 자기가 보기에 매우 똑똑하고 배운것도 많아뵈는 안집 여자에게 아기를 팔삭동이로 굳혀놓은게 그렇게도 대견했다。

일환이한테 그걸 믿게하기가 그만큼 수월해진것 같았다。

그녀는 나가서 미역국을 덥혀서 그자리에 선채 후룩후룩 마시고 남편의 저녁준비를 했다。

간간이 일손을 멈추고 방안에 귀 기울이면 인기척이 들렸다。갓태어난 아기가 내는 인기척을 무엇에 비길까?그것은 청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순수한 감각이니면 못잡을만큼 미미한것인 동시에 그곳에 무거운 공기와 콘크리트바닥을 가만가만 진동시킬만큼 힘센것이었다。

한국일보 詩壇

가을 入門

權龍太

가을 밤엔
落葉에 불이 타오르는
山家에서
寡座하며,
등불이나 돋우고
古書를 읽는 것이 멋이네。

아니면 내 젊은 날
傷痍의 가슴을 앓았던
回想의 숲속을 거닐며,
짙은 크레용으로
가을思索을
探色해 보는 것도 좋을레라。

이맘때쯤 가을風俗은
여름의 뜨거운 바다에서
바람은 이미 떠날
準備를 하지만,
가을을 아는 사람들은
쓸쓸히 돌아서지 않는다。

가을은
積阻하게 지냈던
故鄕 친구에게
묽은 벼루에
墨을 갈고,
古典의 語套로
가을 安否를 묻게 한다。

海外醫學

英國퀸·메리 醫科大學 접착제 發明에 큰진전

手術후 봉합대신 반창고로 5년내에 一般病院서 實用化

정부·製藥社서 財政·기술지원

세계名門醫大의 하나인 英國퀸메리大의 접착제연구그룹은 현대外科의술의 혁명을 일으킬만한 접착제 발명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런던大의 일부인 퀸메리醫大는 영국정부로부터 3만2천파운드 (약4백만원)、그리고 영국굴지의 제약회사인 스미드·앤드·네퓨社의 기술지원을 받아 현재 수술시에 실로 꿰매지않고 상처를 접착시킬수 있는 반창고를 개발중인데 이미 상당한 연구진척을 보이고있다。

엔드가·앤드류교수가 주도하고있는 이번계획은 적어도 5년이내에 일반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앤드류연구팀은 현재 두가지문제에 달라붙고있다. 하나는 濕기를 흡수할수 있는 반창고를개발하는것。일반적으로 반창고는 땀이나 혈액에 젖지않은 마른 피부에만 붙게돼있는데 앤드류연구팀은 습기를 증발시키는 물질을 첨가하려하고있다。현재 유리섬유등 여러 合成수지제품을 섞어가며 희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두번째는 상처에 붙인 반창고의 접착제가 일정시간을 지난후 저절로 분해되도록하는 문제。

미생물분해법을 이용하여 개발할 이반창고의 접착제는 상처에 붙인 반창고가 일정시간뒤, 즉 상처가 아물때쯤 자동분해돼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두가지 假說的연구는 破裂과학 (Fracture Science)에 기초원리를 두고있다。

어떤물체가 갈라지면 이 물체는 언제나 다시 접착하려는 힘과 갈라진 상태를 계속하려는 相反作用현상이 나타나는데 접착에너지가 강하면 결국 原狀복귀되고 분열에너지가 커지면 갈라지고 만다는 논리가 파열과학의 골자다。

인체의 어떤부분 피부나 뼈의 어떤부분이 갈라졌을때도 이런현상이 일어난다。앤드류그룹이 연구하고 있는것은 수술을 포함한 어떤 파열현상에도 그 파열·접합에너지를 계산해내 접합에너지를 보강한다는 가설을 잡고있다。

파열과학은 의학분야에 뿐아니라 항공공학에도 적용을 시도하고있다。

현재 상당한 연구를 진행시키고있는 분야는 항공기에 얼음이 끼지않는 물체를 찾는것。

비행기는 고공에 올라갈 경우 胴體, 날개등에 얼음이 끼게되는데 파열과학에 의하면 이는 분열에너지보다 접착에너지가 많은 현상의 결과라는것。

접착에너지의 생성을 막는 물질을 연구한결과 폴리우레탄이 적합하다는것을 찾아냈다。그러나 아직 폴리우레탄의 경제성、그리고 구체적인 機體제작법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外紙】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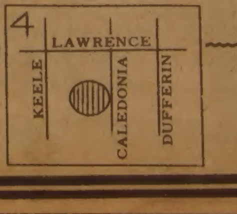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September 7 - September 18		SPECIAL
Dare Peg Top Candy	12x1.29	$ 9.60
Allen's Fruit Slice Pops	48x10¢	3.16
McCormick's Marshmallow Brooms	24x30	4.69
Cadbury Reg. Chocolate Bar	36x40	9.99
Cadbury Thick Chocolate Bar	36x55	13.75
Hershey Reg. Chocolate Bar	36x40	8.49
Rowntree Reg. Chocolate Bar	36x40	9.99
Neilson Reg. Chocolate Bar	36x40	9.99
Lowney's Reg. Chocolate Bar	36x40	9.99
Life Saver's Candy	24x30	4.55
Bubble Yum	18x30	3.00
Mo Jo	400x2 for .5¢	5.59
Gobstoppers	24x25	3.9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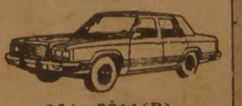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외 문

金浦세관원들「密輸共謀」

治安本部수사 휴대품僞裝 밀수품 默認해와

밀수꾼·세관원 身柄확보…3명手配

치안본부는 31일 金浦국제공항세관원들이 관광객을 가장한 상습밀수꾼과 공모, 여행자휴대품으로 위장한밀수품을 무사통관시켜준 확증을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黃孟順씨(44·여·서울 中區筆洞1가30)와 曺계준씨(40)등 2명의 신병을확보, 공모관계를 집중수사하는한편 다른 세관원金모등3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黃씨는 지난8월25일 출국했다가 30일하오7시30분 金浦착 KAL 001편으로 東京에서 입국하면서 전자손목시계 1백20개, 어린이용장난감손목시계 60개, 카메라, 카세트등 모두 6백만원어치의 밀수품을 들고 들어와 그대로 통관이 됐다는것.

黃씨가 밀수를한다는 정보를 입수, 대기하고있던 경찰은 黃씨가 공항검색대를 무사히 통관하자 黃씨를연행, 밀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黃씨의수첩에서 세관원 金씨등 4명의명단을확인, 30일밤 일제검거에 나섰으나 金씨만잡혔고 나머지3명은 모두 행방을 감춰버렸다.

경찰은 黃씨가 지난81년12월26일 첫출국, 이때 그동안 20차례나 외국을 드나든것으로 법무부에 기록돼있는데반해 입국자가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입국세관신고서가 세관쪽에 한장도 없는사실을 확인, 세관원들이 이신고서를 모두 없앤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黃씨의 수첩에서 세관원 金씨등의 근무일자가 모두적혀있음을 발견, 黃씨가 金씨등이 근무하는날만 골라 전문적으로 밀수해온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세관원들이 黃씨외에도 보따리밀수꾼들과 전부적으로 결탁돼 있는것으로 추정하고있는데 세관원들은 통관시켜준 댓가를 사후 시중에서 별도로만나 결제했을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黃孟順씨 黃씨는 81년 9월29일 흥진물산과장 자격으로 상용여권을 신청, 5년기한의 여권을 발급받아 그해 12월26일 첫출국, 20회에 걸쳐 일본에만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3~7일만에 귀국했다.

◇黃孟順씨

謝罪하러 한국에 美거주 日人목사

【로스앤젤레스=聯】南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인목사부부가 일본인의 잘못을사죄하기위해 9월2일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의 일본인목사회 회장이며 나사렛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인 야마모또·고이찌목사(59)。

『일본은 과거에 범한죄를 회개해야 망하지않습니다。또한·일진선은 그리스도의 현재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야마모또목사는 말했다。

그는 일제말 서울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치른일이있다。부인 나나꼬여사와함께 한국을찾을 야마모또목사는 水原에있는 提岩里교회를찾아 과거 일인들의잔악한 행위를 속죄하고 韓國기독교인사들과 만나 일본교과서의 왜곡을 규탄할것이라고 밝혔다。

大邱、하룻밤 택시強盜4건

【大邱】31일새벽 0시부터 4시사이 대구시내 大明洞일대에서 4건의 택시강도사건이 잇달아 발생,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날 0시20분께 대구南區 大明19洞 김상진씨(37) 집앞길에서 대구2바5056호 한시택시(운전사·이대인·32)를 타고가던 30세가량의 남자승객이 흉기를 들이대면서 운전사 이씨를 차에서 끌어내린후 그대로 차를몰고 달아났다.

▲새벽2시30분께 대구南區 大明洞구 신민당사앞길에서 신진택시 대구1바1134호택시(운전사 임대선21)를 타고가던 27·8세가량의 남자1명이 운전사 임씨의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운전석옆에 놓여있던 현금6만원을 털어달아났다.

▲이날새벽 3시10분께 대구南區大明洞1915 삼익문구사 앞길에서 대일한시택시소속 대구2바4382택시(운전사·김운중·41)에 타고가던 30세가량의 남자승객 1명이 등산용칼로 운전사김씨를 위협, 현금 7만5천원을 빼앗아달아났다.

▲새벽3시30분께 대구시 西區飛山7洞 유창약국 앞길에서대구1바5219호택시(운전사 김태봉28)에 타고가던 30세가량의 남자승객이 갑자기 같은수법으로 운전사 김씨를위협하고 현금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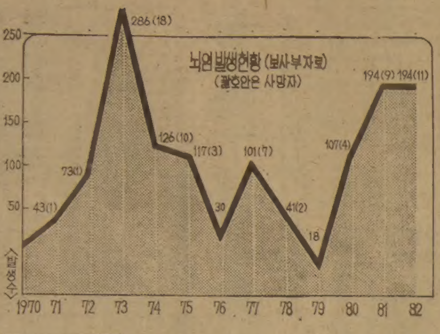
日本뇌염 防疫대책 混線

「眞性」여부 判定에 5~7日 걸려

사망자는 거의「擬似」로끝나 어제까지 百94명… 작년水準

【井邑=鄭樂鉉·趙在鎬기자】일본뇌염이 80년을고비로 연3년동안 계속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아지고있다. 뿐만아니라 보사부와 시·도당국이「진성」여부를 가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의사」뇌염환자들의「사망」도 계속늘어나고있어 방역대책에 혼선까지 빚고있다.

80년이후 發病·致死率높아져



보사부집계에 따르면 일본뇌염은 70년 27명(사망2명)이던것이 73년 2백86명(사망18명)으로 최고발병률을 보인후 차츰 줄어 79년 18명(사망자없음)으로 가장 적었었으나 80년에는 1백3명(사망4명)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고 81년에는 1백94명(사망9명)이 발병했다。금년들어서는 8월말에 이미 작년과 같은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뇌염이 보통 9월중순까지도 발생하는것을 참작하면 발병숫자는 더욱 늘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에는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진것이 특징이며 작년의 사망자가 9명인데 비해 이미 11명이 숨지는등 사망률이 높은것도 주목된다。

일본 뇌염의 진성여부는 환자의 혈청을채취, 서울의국립보건연구원이나 지방의 도보건 연구소에서 반응시험을거쳐 혈액의 희석도가 3백20대1을 넘어서야만진성으로, 3백20대1에 미달하면 의사뇌염으로 판정되는데 이과정이 5~7일씩 걸려 그사이에 환자들은 진성여부를 가리기도전에 사망하는 수가많아신속한 방역이 잘돼지않는경우도있다。

이에앞서 도내 淳昌, 益山, 金堤, 高敞등지에서는 금년들어 어린이4명이 의사뇌염증세로숨져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으나 정작 이들중「진성」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한명도 없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이후 뇌염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 30일에는 하루사이에 17명의 뇌염증세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뇌염증세로 숨진 어린이들은 모두 발병한지 2~7일안에사망, 예년과 병의 양태가 달랐는데 대부분이 진성여부가 판명되지않아 본격적인 치료를 받지못한채 숨졌다。

뇌염증세 어린이 2명 또 숨져

【大田】지난 23일과 26일부터 뇌염증세로앓아오던 충남洪城郡西部面南塘里 박윤희양(11)과 洪城郡洪北面大仁里88 김태원씨(18)등 2명이 31일 각각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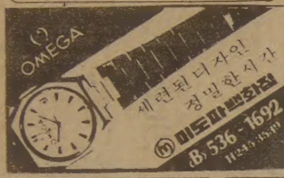
한편 이날현재 충남도내에는 모두 35명이 뇌염증세로 앓고있는데 시·군별로는 保寧12명 洪城·瑞山·扶餘 각5명、舒川3명、論山·大德 각2명、公州·靑陽·禮山 각1명등이다。【聯】

"全北의사뇌염發生 보도내용과다르다" 보사부

한편 보사부당국은 전북도가 최근 보고해온 의사뇌염환자발생수가 보도된 내용과「크게」차이가 있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뇌염환자들의 혈청은 도보건연구소나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감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鐵橋위서 열차에 어린이2명 轢死

【晋州】31일상오 5시55분께 경남晋陽郡 文山面象文里 경전선 문산천철교(높이 20m) 위에서 약수를뜨러 주전자를들고가던 우육진양(8·문산국교 1년·晋陽郡文山面蘇文里153)과 같은 마을 조정희양(5)등 어린이 2명이 釜山에서 順天으로가던 제913호 완행여객열차(기관사 金인수·36)에 치어그자리에서 숨졌다。【聯】



曹溪宗스님·비구니 패싸움

寺刹주도권 싸고

31일 낮12시30분께 경기高陽郡神道邑紙杻里203 興國寺 경내에서 조계종 종무원소속 남자스님 10여명과 조계종 興國寺 비구니 20여명이 사찰주도권을 두러싸고 패싸움을 벌였다。

이날 싸움은 조계종이 발령한 신임주지 李明海스님을 부임시키기 위해 낮12시30분과 하오2시 두차례에 걸쳐 총무원소속 남자스님 10여명이 절로오자 興國寺소속 비구니27명이 『불법으로 총무원에 넘어간 절을 비워줄수 없다』며 맞서 일어났다。

비구니들에 의하면 興國寺는 전임 趙惠秀스님이 율로 절을 관리해오다 지난해 9월24일 비구니 강원으로 지정됐다는것인데 趙스님이 총무원에 관리권을 넘기는 바람에 쫓겨나게 됐다는것이다。비구니들은 이절이 서울근교에 위치해 있고、신도들도 2천여명이나돼 종무원에서 이권을 노려 절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종무원측은 전임趙스님이 사표를내、종단의 결의에따라 신임주지 李明海스님이 부임하려했으나 興國寺소속 비구니들이 종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절을 비워주지 않고있다고 주장、강제로라도 절을 접수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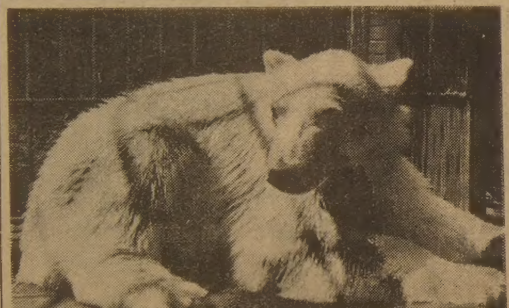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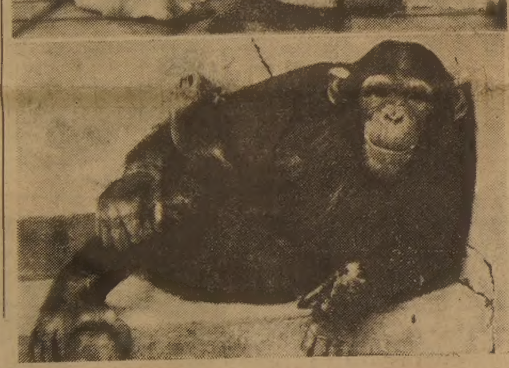
興國寺는 신라文武王때(서기661년) 창간됐는데 한때는 이조왕실의 기도처로 사용됐으며 60여마지기의 논이 딸려있다。

77명 集團 장티푸스

議政府市 나전모방… 구내식당 食事뒤

【議政府】경기議政府市長岩洞135 나전모방공장 종업원 장효순양(21)등 77명이 30일상오9시께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뒤 설사·복통·고열증세를 일으켜 18명은 시내 국민병원등에 입원、가료중이고 59명은 기숙사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원장 조성용씨는 환자들을 진찰한 국민병원 결과 단순한 식중독이 아닌 유사장티푸스증세였다고 말했다。한편 議政府市는환자들의 가검물을 도보건 연구원에 보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나전모방은 中浪川에서 1백여m 떨어진곳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聯】



◇昌慶苑 새가족 가을을맞아 창경원 새가족이된 북극산 흰곰과 서아프리카산 침팬지。이들은 3일부터 일반관람객에게 공개된다。

새 動物가족 昌慶苑에

침팬지·흰곰등 5마리 들여와

창경원에 새 동물가족이 늘어왔다。

창경원은 31일 침팬지 수놈과 바다사자암놈、흰곰 수놈등 5마리의 동물가족을 새로 들여와 그동안 짝을잃고 홀로 지내던 과부침팬지와 홀아비 바다사자등에게 짝을 지어줬고 지난해 12월부터 비어있던 흰곰우리를 채웠다。

새식구들은 창경원측이 독일의 루헤동물원에서 모두 2천50만원의 몸값을 내고 구입、30일 KAL편으로 공수해온 것이다。

새로 들여온 침팬지는 서아프리카산으로 바다사자는 북극산인 서에 7백80만원에、북극산인 흰곰은 1천만원에 각각 사들여왔다。아프리카산 말로원숭이 한쌍은 국제동물친선교환운동에 따라 루헤동물원측이 창경원에 기증된 것이다。

창경원에는 지난해1월 침팬지 한쌍이 새로 들어왔었으나 수놈이 들어온지 하룻만에 장폐쇄증으로 숨지는바람에 암놈침팬지만 그동안 외롭게 지내왔으며 바다사자도 지난76년10월 암사자가 노령으로 숨져 수놈만 남아있었다。

창경원측은 이식구들을 오는 9월3일부터 일반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大戰중 日서희생된 한국인遺骨 고국에

【東京=聯】2차대전중 일본 홋까이도(北海道)에 강제동원돼 수력발전 댐공사장에서 일본인들의 온갖학대를 받으며 막노동을하다 기아와 질병등으로 숨진 15구의 한국인 유골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홋까이도의 소라찌군(空知) 호로까나이읍(幌加內) 주민들은 지난76년부터 이곳 읍내 댐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하다 숨진 15구의 한국인 유골을 한국에있는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삿뽀로 한국총영사관과 서울에서 승려로 봉사하고 있는 尹晩榮씨가 오는 10월중순께 이지역주민대표 2명의 한국방문을 주선함으로써 고국의 유족들과 정식으로 유골반환절차를 협의할수 있게됐다。

釜山 대명木材폐업

【釜山】국내굴지의합판제조업체인 대명목재주식회사(대표 정영호·釜山市南區多大洞)가 계속된 경영난끝에 31일 폐업했다。

대명목재는 지난 69년에설립、그동안 합판수출붐을 타고 국내 3대합판메이커로발돋움했는데 최근들어 거액의 부채로 경영난에 빠져지난18일부터 조업을중단、휴업에들어갔다가 이날폐업한것이다。

렌즈속 風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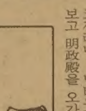
昌慶苑지켜보는 사진사 李基洪씨

"일거리도 없고 高聲放歌도 없고…"

창경원사진사 李基洪씨(65·사진)는 거의 매일 창경원 明政殿앞과 낙타·코끼리우리앞을 서성거린다。봄에는 여기에「벚꽃나무아래」가 추가된다。

창경원 관람객중 어린이들은 사진찍는 배경으로 낙타와 코끼리우리앞을 좋아하고 나이든 사람은 하얗게 피어난 벚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明政殿은 해외취업자의 가족들이 아빠나 남편에게 보낼 사진의 배경으로 즐겨 택하는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마음이 허전하다。코끼리나 낙타우리앞을 맴돌아보고 明政殿을 오가도 찾는 사람이 없다。모두가 손수 카메라를 들고와 사진을 찍는 바람에「일거리」를 빼앗긴 것이다。



『그 옛날「꽃때」가 좋았지…』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다。「꽃때」는 벚꽃피는 4월을 뜻한다。꽃피는 4월 날씨좋은 토요일 21만명의 관람객이 몰려와 서로먼저 찍어달라고 잡아당기던 일은 생각만 해도 흐뭇하다。

1933년 16살때 고향 漣川에서 사진관에 구경다니다 배운 솜씨로 사진을 찍기시작했는데 그때처럼 즐거웠던 때는 없다。소요산에서 관광객을 찍다가 66년5월창경원으로 옮긴후 16년째를 보내고 있다。

창경원에서 처음 일할때는 구식 구름상자 카메라였으나 카메라가 그리 많지않은 때라 요새돈으로 하루 10만원을 손에 쥔적도 있다。

그동안 李씨의 카메라렌즈에 비친 창경원의 풍속도도 많이달라졌다。예전에는 부부사이라 해도 손도 잡지않고 굳은 자세로 포즈를취해 억지로 손을 잡아주곤했다。그러나 요즘 젊은 층은 낯이 뜨거울정도로 노골적인 포즈를 잡기도한단다。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도 창경원의 변한 풍속중의 하나。창경원당국이 원내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한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에는 창경원은 술마시고 신나게 노는 무질서의 한 상징으로 여겨졌지요。요즘 관람객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질서의식도 옛날과는 비교가 안될만큼 높아졌어요』카메라렌즈의 초점이 모아지듯 李씨의 관찰력이 선명하게 느껴졌다。【徐華淑기자】

文化短信

한국 巫神圖 특별전 국립 민속박물관서

한국巫神圖특별전시회가 1일부터 2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전시실에서 열린다。(매주火요일 휴관)

巫神圖는 무속에서 무당들이 모시는 神을 그린 화상으로 山神、최영장군、용궁부인、別相등 1백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를 마련한 국립민속박물관측은 최근 한국고유원시종교로서 무신도에 관한 일반과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이 높아 각종무신의 종류와 기능을 이해하고 그 회화적 측면을 조명해 보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랜드폴·프레스版畵 3일~15일까지展示

미국 랜드폴·프레스판화전시회가 한국현대판화가협회·美대사관국제교류처 공동주최로 3일부터 15일까지 美대사관국제교류처전시실(옛대호텔건너편)에서 열린다。전시품은 50여점。

5行뉴스

◆炭더미깔려 2명壓死 【春川】30일하오 9시30분께 강원三陟郡道溪邑 上德里 정동광업소 본갱지대 1천70m지점에서 광부金만기씨(43·道溪邑上德里5班)와 정재경씨(23·동)등 2명이 천정에서 무너져내린석탄더미에 깔려숨졌다。【聯】

結實의달 9月

9월은 결실의 계절。중앙기상대는 9월의 날씨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속에 30도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돼 수확에 큰 도움이 될것같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중순과하순엔 두차례 비가오겠으나 강수량은 예년보다 다소 적을것으로 예보했다。

〈이달의 메모〉▲8일=白露▲18일=철도의날▲23일=秋分▲28일=9·28수복。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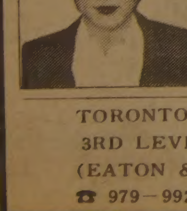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 북어포	1.25	~~1.55~~
♧ 마른미역	1.99	~~2.50~~
♧ 물미역	.99	~~1.29~~
♧ 소 면	.89	~~.99~~
♧ 냉 면	.99	~~1.29~~
♧ 도라지	2.49	~~2.95~~
♧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 신품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1391 WESTON RD. ☎: 243-9544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444-1136

한국 男개인脫落

朴利熙·金浣、4強문턱서 日·스웨덴에

梁英子·申得花 결승격돌 女개인

서울国際탁구

金琦澤·黃男淑 혼합복식 優勝

◇梁英子의 드라이브 여자단식 준준결승전에서 梁英子가金恩喜와의 경기서 드라이브공격을하고있다。梁은 3—0으로 완승。

한국탁구는 개인전에 약했다。남녀단체전을 휩쓴 한국은 남자개인단식에서 기대했던 세계랭킹14위 朴利熙와 36위 金浣이 모두 4강 문턱에서 패퇴、개인전의 약세를 드러냈다。31일 잠실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제2회 서울오픈국제탁구선수권대회 최종일경기 남자단식 8강전에서 한국의 朴利熙는 세계랭킹 37위인 日本의 마에하라와 1시간20분간 불꽃튀는 접전을 벌였으나 3—2로 분패했다。金浣도 세계랭킹 22위의강자 발트너(스웨덴)에 선전했으나 일진일퇴의 공방끝에 3—2로 패퇴했다。이로써 한국은 남자단식4강에 한명도 오르지 못했다。준결승서는 西獨의 신에 게오르그·롬과 美國의 에릭·보간 발트너와 마에하라가 대결한다。

세계랭킹 4위로 이번대회서 1번 시드를 배정받았던 스웨덴의 아펠그렌은 뜻밖에 봄에게 3—0으로완패했다。

한국선수 7명이 8강을 랐던 여자개인단식선는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결로 실력이외의 요인이 작용, 파란이일어났다。

미국산 即席簡易食 세계석권

맞벌이夫婦·俸給者들에 인기

스러웠다고 답했다。

고통을 참지못해 그중33%는 스스로 약을투입을 의뢰했으며 43%는 의사가 제의한후 승낙했다고。

이렇듯 고통스러운 진통시간은 사람 따라 다른데 첫애일 경우 특히 길다。

첫아이의 진통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태아가 나온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데 10분미만이 23%、10분에서 30분사이가 36%、30분에서 60분사이가 17%였다。

外國선 못따라가

○…싸고 맛있고 즉석에서 사먹을수 있는 美國의 패스트 푸드(즉석간이식품)가 전세계에 4천여개의 체인을 갖고 성업중이다。햄버거、치킨과 피자등을 캐나다、남미、아시아、아프리카、유럽에서 다루어 수입을하고있는것이다。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리에서도 먹을수 있고、메어리 퀸 아이스크림을 東京의 긴자 거리에서도 맛볼수가 있다。현재 미국에서 이들 즉석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57개。25년전부터 나타난 이식품은 10년전부터 외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맞벌이 부부와 샐러리맨들의 간단한 점심 식사등으로 인기가 높은데、워낙 업소와 구매자가 많으므로 판매 경쟁도 치열하고 외국에서(미국을 제외한) 自國제품까지 생산에 열을 올릴정도。그러나 한업자는『미국의 이런 즉석 식품은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요지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있다。외국은 우리보다 10년은 뒤져있기 때문이다』라고 호언 장담한다。

그에의하면 유럽과 日本의 체인은 美國과의 갭을 메우려는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에 있을 뿐이란는것이다。

한국가톨릭「諡聖·諡福」운동 전개

84년 2백周 대비…「순교자의 달」맞아

金大建·丁夏祥등을 첫 聖人 班列에

1백3위외 새福者 찾는 움직임도

日本의 聖人 26位중 한국인 3位 확인돼

9월은 한국가톨릭이 정한 殉敎者의 달이자 福者聖月。지구상에서 10억이상의 인구를 포용하고있는 가톨릭은 2천년역사를 쌓아오는동안 聖人 聖女만 5천여명을 내놓았다。한국땅에서는 신앙을 피로써 지킨 순교복자 1백3위가 있으나 아직 聖人은 한사람도 내지못했다。한국가톨릭은 이달을 맞아 순교자들의 시성시복(諡聖諡福)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84년으로 다가온 2백주년 기념행사 사업으로 교황영접과 신앙대회、전국사목회의、교회사 자료정리、통일성가집·전례서편찬과 함께 순교복자시성이 큰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 최초의사제 金大建、유명한 上宰相書를쓴 丁夏祥、기해일기를 남긴 玄錫文、14세의 나이로 꿋꿋이 신앙을 지킨 劉大喆을 비롯、수많은 순교자를 성인반열에、그리고 1백3명외의 다른순교자들을 행적을 찾아 복자품위에 오르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가톨릭성인이 26위、복자가 2백5위에 이르고 있다。임진왜란때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나라사람은 5만명에달하고 이가운데는 성인3위、복자12위가 끼여 있다。이때의 한국인 포로는 갖가지 고욕을 당하고 심지어 시장에 진열되어 물건처럼 매매되는 가엾은 신세였다。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바빌론강변에 주저앉아그들의 고국 유태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오열하였던 유태아인 포로들같이 일본에끌려간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여울한 사정을 오직하느님을 찾아믿기위해 가톨릭에 입교했다고 전해지고있다。

일본聖人 福者가운데 한국사람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은 70년대 중반부터 알려졌던일이나 정확한 기록이 밝혀지지않아 논란이돼오다가 최근 일본순교자에대한 교황시성칙서에서 출생지가 코레아로 완전 확인된 것이다。

한국인聖人은 바오로、이바라끼(茨木)、레오·이바라끼、루도비코·이바라끼등3명으로 父子·형제·숙질간이다。레오는 바오로의 동생이고루도비코는 레오의 아들이므로 바오로는 루도비코의 큰아버지가된다。

한국에서는 귀족집안이던 이들은 일본에 잡혀가자마자 맨먼저 레오·이바라끼가 성프란치스코 3회에 들어가수도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수인 그의형 바오로를 입회토록이끌었다。

레오는 나병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수도원이 맡아하는성당고아원 병원건축공사등에 발벗고 나서 현장감독으로지명됐는데도 늘 날품팔이꾼들과 같이 대우해주기를 바랐다。이같은 그의 겸손은 오히려 많은 주변사람들에게감동을 안겨주었고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루도비코는 12세의 어린나이로 일본어에 서툰 스페인神父 통역겸 복사(服事)를 했다。당시 일본을 통일한도요또미·히데요시(豊臣秀吉)에의해 종교탄압령이 내려지자 교오도(京都)근교에 있던 성프란치스코 수도원의신부수사들은 겁이나서 도망치기는 고사하고 박해가 순교당하는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수도원 검거책임자는 루도비코가 너무 어린것을 보고 체포대상에서 그를 제외하려하자 루도비코는 울고불고하여같이따라가겠다고졸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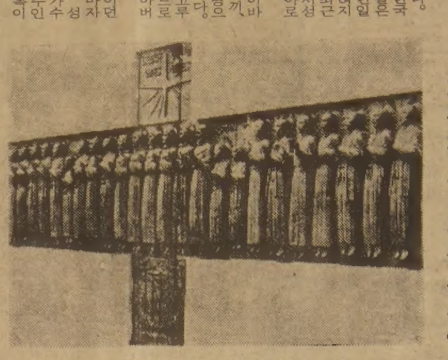
당시 가톨릭신자들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나가사끼(長崎)로 보내 처형했다。그것도 맨발로걸어서 나흘만에 도착、나가사끼 현장인 다데야마(立山)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던 것이다。2천리나 되는 험한 돌길을 맨발로 걷는동안 루도비코의 발이 찢어져 피가 흥건 흘렀다。

이때 지방관원 한명은 사형수 인솔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루도비코가 너무 가엾어서『지금이라도 엄마가 보고싶다는 한마디만해라。그러면즉시 집으로 보내줄테다』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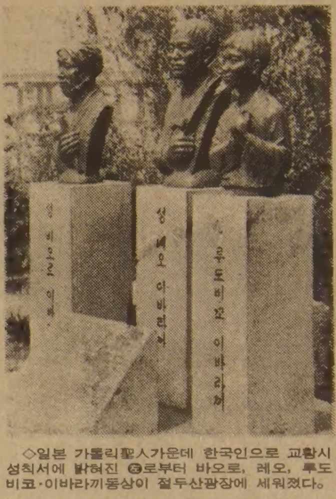
그러나 루도비코의 대답은『많은 고통과 괴심적정으로 꽉차있는 이세상 잠시의 생명하고 영원한 천국의 행복하고 바꿀 생각은 전연 없어요。다시는 나를 유혹할 생각을 마셔요』하고 살려주겠다는 호의를 단호히 거절해 버렸다。이를 지켜본 25명의 신앙증인들이 더욱 용기를냈다고순교록은기록하고있다。

이들 26명은 순교한지 2백65년이 지난 1862년 교황 비오9세에의해 성인품위에 올랐고 나가사끼의 치명터는 시성된지 1백년이흐른 1962년에 동상을 조각、순례자들을맞이하고있다。

한국에서는 성프란치스코재속3회가 중심이되어 지난78년 절두산 순교복자기념관 광장한쪽에 세성인동상을 건립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했으나 시성시복운동에 힘입어 이번 9월에는 그 행적이 널리 밝혀질것으로 보인다。【李忠雨기자】



◇일본 성인 26명의 치명터 나가사끼의 다데야마(立山·지금은 西阪이라고 부름)에는 동상과 순교비를 세워 순례자들이 줄을잇고 있다。



◇일본 가톨릭聖人가운데 한국인으로 교황시성칙서에 밝혀진 ㊧로부터 바오로, 레오, 루도비코·이바라끼동상이 절두산광장에 세워졌다。

宗教新刊

「주앞에 모여」카진스키 「희망을 향해」슈피커 「사람서리에서」보아욤

◇분도출판사가 내놓은 일련의 종교서적들。

○…분도출판사는 미사의 각부분을 해설한「주앞에 모여」(카진스키엮음·최윤환옮김)、미술작품을 감상하며 삶의 희망을 찾게꾸민「희망을 향해」(슈피커著·金允柱譯)、예수의 작은 형제들이대화체로 쓴「사람서리에서」(러네·보아욤著·강우일譯)등 일련의 교리서적을 출간했다。

「주앞에모여」는 미사가하느님백성의 집회란는 기본성격을 설명한다음 미사의 각부분 안내와 공동고백 영세경신및 미사의 쇄신문제까지 다루고있다。

「희망을 향해」는 현대인이 명상의「곳간」을 사무실이나 기계공장으로 바꾸었음을지적、삶의 가치를 깨우치기위해서는 그「곳간」을 다시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青年 루터」에릭슨著

○…종교개혁가 마르틴·루터의 청년기에 초점을 맞춘 宗教書이자 歷史書인「청년루터」(에릭·에릭슨著·최현석譯)가 人間社에 의해 출판됐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법학석사학위를 받은 루터가수도원에 잠적함의로써 지상의 아버지대신 하늘의 아버지를 따라 종교개혁가가 되나 결국은 점차 변천해가는 과정을 보여준점에서 心理學書라고도 할수있다。

寺刹자료 총서「…名山大刹」

○…국제불교도협회가 한국사찰자료총서 제1호로「韓國의 名山大刹」을 펴냈다。컬러사진 42장과 흑백사진 3백40장을 곁들여 국내의 절도운 절 1백43개소를 선정하며 집중소개한 사찰안내서。사찰연구는 물론이고여행과 포교에 고루 활용할수있게 꾸민 이 책은 일본어와 영어로도 번역돼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해외에 알리고있다。

金有淵목사 說敎 수상집「福音의 講壇」

○…金有淵목사(사진)설교와 수상집「福音의 講壇」(도서출판 敎民社 발행) 출판기념예배가 4일하오3시 신촌성결교회 교육관에서 열린다。

성결교회 지도자의 한사람인 金목사는 서울신학대교수、재직중 6·25동란을만나 납북됐다가 아직 생사를 모르고있다。아들인 金聖浩목사(찬송가위원회 총무)가 유고를 정리하여 내놓은「복음의 강단」가운데는「죽음의 세월」이란 제목의 납북인사 북한생활상의 실록도 실려있다。

「甑山教概說」

○…甑山教概說(洪凡草지음)이 創文閣 발행으로 나왔다。증산사상연구회 부회장이며 檀山종합전문대 교수인 저자가 甑山教단개론을 보임한이 책은 증산교의 教義와 教史를 한데묶은 입문서이기도하다。증산의생애、증산교의 사회사상、증산교단사등 4편으로 편집돼있고 증산교단의 초교파운동사도 곁들여있다。

국가代表선수 국내競技출전

대한체육회는 31일 국가대표선수들의 국내경기 출전금지조치를 9월부터 일부 완화키로했다。

체육회는 오는 11월19일부터 印度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지난 8월20일부터 대표선수들의 국내경기출전을 금지시킬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부 경기단체에서『아시안게임 3개월전부터 대표선수를 묶어두면 국내경기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시정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것이다。

한국 2連敗부진 세계프레排球 브라질에 3—2

【사웅파울루(브라질)=聯】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30일(현지시간) 이곳 국립체육관에서 벌어진 제9회세계프레 여자배구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에서 홈팀 브라질에 3—2로 패배、2패를 기록했다。

清楚한 久遠의 女人像

잉그리드·버그먼 가다

乳房癌 두번手術…生日에

「카사블랑카」등 팬의 가슴에 남기고

청초한 모습으로 세계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스웨덴출신의 전설적인 여배우 잉그리드·버그먼이 30일 그의 67번째 생일 런던자택에서 세상을떠났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짧은머리의 청초한 모습으로 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잉그리드·버그먼。

버그먼은 74년이래 유방암으로 투병생활을 계속하면서 74년과 78년 두차례의 유방절제수술을 받았다。버그먼은 마지막날을 세번째 남편이었던 라즈·슈미트와 함께 보냈다。버그먼은 세번 결혼해 모두 실패、최근에는 혼자 외로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버그먼은 세번씩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은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있다。43년 험프리·보가트와 공연한「카사블랑카」에서 비극의 히로인으로 세계영화팬들을 울렸던 버그먼은「가스등」(44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아나스타샤」(56년)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오리엔트특급살인사건」(74년)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 짧게깎은 머리의청순한 모습으로 영화팬을 사로잡았던 그의 모습을 이젠 옛날 영화속에서나 볼수 있게됐다。

77년 잠시 스크린을 떠났던 버그먼은 81년 美國에서 제작된 TV영화「골다라고불린 여인」에서 이스라엘 前수상 골다·메이어역을 맡아 영화에 복귀했었다。이 영화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됐다。

『시간은 짧아요。나는 그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죠。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가장 멋지게 살려고 노력해요』버그먼이 남긴 말이다。그는또 80년 출간된 자서전「마이스토리」에서『나는 항상 좀더 나은 연기만을 생각한다。절대로 포기할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헨리·폰더란는 큰 별을 잃은 세계영화팬들은 그후 18일만에 접하는 버그먼의 타계소식을듣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1916년 스웨덴에 이민온 집안에서 태어나 13살때 고아가 된 버그먼은 18세때 스웨덴 국립연극학교에 들어가면서 연기를 시작、스웨덴에서 10대영화배우로 활동했다。그는 36년 독일영화「세친구」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2년여동안 현지에서 활약했다。

그는 20대중반 로베르토·롯셀리니 감독과의「세기의 열문」으로 유명해졌다。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38년。데이비드·셀즈니크감독의「이별」에 출연하면서부터다。그는 당시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청초한 미모를 자랑했다。셀즈니크는『버그먼은 손댈것도 바꿀 것도 없어요。생긴 그대로가 좋아요。버그먼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최초의 여배우예요』라고 말한적이 있을정도。

버그먼은「이별」한편으로 명성을 얻게되자 계속「아들4형제」「천국의 분노」「지킬박사와 하이드씨」(41년)「망각의 여로」(45년)「오명」(46년)「개선문」(48년)「잔·다르크」(50년)「추상」(56년)「무분별」(57년)「여섯번째의 행복」(58년)「황색승용차」(64년)「선인장의 꽃」(69년)「봄비 속에서」(71년)등 화제작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78년엔 스웨덴 감독 잉그마르·베리만의「가을소나타」로 재기、명연기를 보여주었다。

버그먼은『인생보다도 영화에서 더 많은 삶을 산 금세기 최대의 명우였다。

버그먼의 유해는 화장하여 스웨덴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측근은 전했다。【런던外電綜合=聯】

"단풍을 찍읍시다"

제7회 사진촬영대회 안내

아마추어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사진대회가 금년에는 단풍이 보기 좋은 보이드·콘저베이션·파에서 열립니다.

피크닉겸 가족동반, 공원에 나오시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모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은 렌즈에 담아봅시다.

때 : 1982년10월2일(토) 상오11시
곳 : 보이드·콘저베이션·팍
(Boyd Conservation Park : on Islington, Hwy 7북쪽)
부 문 : 칼라·흑백·스라이드
크 기 : 8×10 이상
출품마감 : 10월30일한

제2회 대회 모델 : 장혜련양 "가을의 마음"=촬영 : 임정재

참가자격 : 국적불문(단 : 사진협회 임원·한국일보 직원및 프로 사진작가 제외)
참 가 비 : $10(칼라필름 1통 제공)
시 상 : 1등 부상 나이콘 카메라 1대
기타 6등까지 시상함.
◆선착순 1백명에 한함

문의및 접수처: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킴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주최 :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하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太平洋頂上회담 논의

全대통령·트뤼도首相회담 韓·캐나다 血盟관계 유지

對韓 輸入규제완화등 요청

原子爐 구매·交易증진策도

【오타와=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30일 저녁11시(현지시간 상오10시) 首相실에서 트뤼도 캐나다수상과 單獨頂上회담을 갖고 太平洋지역을 비롯한 국제정세전반과 太平洋頂上會談 그리고 交易擴大문제등 양국의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협의했다.

全대통령과 트뤼도수상은 頂上회담이 끝난뒤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중인 관계閣僚들간의 擴大회담에 참석했다.

全대통령 내일새벽 歸國길에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낮과 밤에는 트뤼도 수상이 주최한 午餐과 리셉션에참석했고 하오에는 클라크 野黨당수와 外交團을 접견했는데 1일새벽 캐나다방문을 마치고 歸國길에오른다.

양국頂上은 이날 회담에서 太平洋지역국가들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域內국가들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는 한편 韓國동란으로 맺어진 血盟의 旣存우호관계를 앞으로 계속 유지발전시키는데 의견을 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韓半島정세에 대해 언급, 北傀의 武力赤化야욕을 설명했으며 이러한 긴장해소를 위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해 캐나다측은 계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頂上은 과거 10년동안 交易量이 15배나 증가하는등 양국의 經協관계가 획기적으로 증진되어온점을 유의하고 앞으로도 통상확대에 적극노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頂上은 또 경제관계현안인▲캐나다의 수입규제 완화▲韓·캐나다의 제3국공동진출방안▲資源의 안정공급과 공동개발문제▲캔두型原子爐·小麥등의 對韓판매등 이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앞서 28일하오 마지막巡訪國인 캐나다수도 오타와에 도착한 全斗煥대통령은 28일『북한측은 우리의 平和統一노력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시대착오적인 세습왕조체제를 굳혀가면서까지 武力赤化통일야욕을 불태우고 있으며 최근에와서는 해외교포사회에 침투, 교포사회를 분열시키고 급기야는 일부해외동포를 국가전복에 악용하려고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캐나다방문 첫날인 이날하오 在캐나다僑民을 위해 李揆現대사가 대사관저에서 베푼 리셉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이자리를 빌어 南北分斷의 불행한 현실이 해외동포사회의 분열로까지 확대되는 일이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강조해두고자한다』고 밝혔다.

오타와와 터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에드먼턴등 캐나다전역의 교민1천2백명이 참석한 이자리에서 全대통령은『해외동포여러분들이 모국정부의 평화통일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면 北韓측의 동포사회침투기도는 무산될것이며 이것은 또한 북한을 대화의 場으로 나오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조국이 살아남을수 있고 北의 南侵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조국강토를지킬수있는 유일한 길은 民族大和合과 自律開放사회건설에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소신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조국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전제『母國정부는 해외소수동포의 과거행동에 개의치않고 이해와 화합으로써 국민적 단결을 이룩, 이를 民族興隆의 추진력으로 삼겠다는 기본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것』이라고 다짐했다.

全대통령은『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것이 바로 조국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있으며 또한 조국이 잘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훌륭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험난한 국제정세속에서 생존권을 수호해야하는 무거운 사명을 안고 있으며 이 사명을 수행하는데는 國內外 동포가 따로없이 巨視的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심단결할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全斗煥대통령이 슈라이어 총독의 영접을 받고 걸어 나오고있다. 【오타와(캐나다) 聯=聯】

◇트뤼도 캐나다수상

日, "2년내是正" 고수

中共에 外交說得 펴기로

【東京=宋孝彬특파원】고교 교과서의歪曲내용을 2년내에 是正키로 약속한 일본정부견해를 중공이 28일 정식으로 거부했으며 이에대해 일본은 기정방침을 고수할것을 30일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의함으로써 교과서 왜곡사건을 둘러싼 외교분쟁은 새로운단계로 발전했다.

일본정부는 교과서왜곡사건과 관련, 문제된 부분을 2년내에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난26일 정부견해로 공식발표했으나 이에대한 한국정부측 반응과는 달리 중공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자 29일밤과 30일 잇달아 오가와(小川平二) 文部相과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협의했다.

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이 기술수정방침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中共이 또다시 조기수정을 요구해온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을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의 견을모았다.

이에따라 30일 상오11시부터 2시간동안 미야자와관방장관의 주재로 열린 외무성과 문부성관계 긴급고위대책회의에서 일본정부는 26일발표된 2년내 시정방침을 고수, 외교경로를 통해 중공측을 설득하도록 계속노력하되 특사파견은 당분간 하지않기로 일단방침을 굳혔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긍정적반응으로 한일간의 교과서분쟁이 외교적으로는 일단락됐으나 이번사건을 계기로 고조된 한국의 反日감정을 진정시키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위해 9월중순께 사쿠라우찌(櫻內義雄) 외상이나 고위특사를 한국에 파견할것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中共, 日約束거부

"교과서 是正 구체적措置를"

【北京=聯】중공외교부는 28일 역사교과서 왜곡기술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일본의 다짐이 中共의 기대에『크게 미흡한것』으로서 양국간에 야기된 외교적위기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라고 지적하고 교과서개정을위한『분명하고 구체적인』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副부장 吳學謙은 이날 중공으로서는 일본의 교과서왜곡시정약속에 대한 첫 공식반응에서 일본측의 다짐이 만족스럽게 명료하지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들을 제시하지않고있다고 지적하고『일본정부의태도는 중공측의 요구에 크게 미흡한 실망스러운것이어서 중공정부는 이에 동의할수 없으며 中共인민도 또한이를수락할수없다』고말했다.

吳는 이날 관영新華社통신을통해 발표한 성명에서『중공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교과서의 오류를 시정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日本社會에 賣國奴 있다"

日郵政相 교과서문제에 妄言

【東京=宋孝彬특파원】미노와·노보루(箕輪登)일본郵政相은 28일 검정교과서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나라를 팔고 국민을 배반하려는자가 일본사회에 있다』고 발언, 말썽을 빚고있다.

미노와郵政相은 이날 自民黨 기후市지구연합회주최 파티에서 이지역출신인 마쓰노·유게야스(松野幸泰)국토청장관에 이어 등단,『내가 가장 곤란하게 여기는 것은 일본인의 마음을 잊어버린 일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교과서검정내용이 이미 지난3월 北京에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미노와장관은 또『지금이야말로 일본인의 魂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때』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아사히신문은 29일자에서 그의 이같은 발언이『차차 가라앉아가고있는 교과서문제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社告

「獨立기념관」建立誠金모금

民族精氣의 求心體에 뜨거운 呼應을

6千萬民族의 이름으로 대망의 獨立紀念館이 建立됩니다. 光復37年이 지나도록 우리의 繁榮과 自存을 보장한 殿堂하나 갖지못한 우리는 마침내 뜻을 모아 民族殿堂의 建立에 굳센 첫걸음을 내디뎠읍니다. 國權을 잃었던 지난날의 民族的受難을 되새기고 民族精氣의 求心體로서의 역할을 다할 새 獨立紀念館의 建立을 위하여 韓國新聞協會會員社一同은 擧族的인 誠金募金運動을 展開하기로 나섰읍니다.

獨立紀念館의 建立이야 말로 우리自存을 지키려는 우리決意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募金運動은 온겨레의 心琴에 가서 닿아 모두의 精成이 總結集될것으로 確信합니다. 5年후인 87年8月에 開館될 紀念館에 쌓일 벽돌하나하나에 各自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獨立紀念館建立誠金募金에 뜨겁게 呼應하실것을 호소합니다.

▲誠金接受…8月31日부터

▲接受곳…한국일보社 事業部및各支社 普及所

성금接受 오늘부터

한국신문협회·한국일보社

◇어린아들 껴안는 PLO將校

베이루트를 철수하여 29일 육로로 시리아의 지데이데에 도착한 팔레스타인解放軍의 한 장교가 마중나온 어린아들을 껴안고 키스를 퍼붓고 있다. 【지데이데(시리아)29日 AP聯=聯】

韓·日議聯총회流動的

野, "日是正약속 미흡"

역사교과서 歪曲문제에 대한 日本정부의 2년후 시정약속을 우리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데뒤이어 民韓, 국민등 야당에서는 日本의公式見解표명이 우리측 요구에 미치지못한다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韓日의원연맹총회 不參論을 내세우고있어 9월7일 東京에서 열리게되어있는 의원연맹 합동총회개최 여부가 매우 流動的이다.

韓日의원연맹은 30일상오 李載灐회장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열고 東京총회 참석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측이 不參방침을 결정할경우 제5공화국出帆이후 재건된 韓日의원연맹은 교착상태에 빠질가능성도 없지않다.

연맹은 各정당별로 31일까지 이문제에대한 黨論을 결정, 회장단에통보해주면 회장단이 31일 하오까지 참석여부를 최종 결정키로했다.

이와관련하여 民韓黨은 이날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日本측이 교과서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때까지는 연맹활동에 참여치않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에관한 최종결정은 31일의 黨務會議에서 내리기로했다.

參戰용사 위문

【오타와】全斗煥대통령은 29일상오(한국시간 29일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오타와에서 東南方으로 1백57㎞떨어진 생트안·드·벨뷔의 생트안병원을 방문, 韓國戰참전용사들을 위문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병원내 강당에서 거행된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한국국민들은 우리가 누리고있는 自由와 平和 그리고 번영이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은바 있음을 잘 알고있다』고말하고『한국민들은 우리의 主權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값진희생을 한 5백16명의 캐나다전몰장병들을 생각할때마다 우리가 자유세계의 방파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하겠다는 사명감과 결의를 새로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日文部省次官사표

정부見解에 반발

【東京=聯】일본文部省의 미쓰이·데쓰오([illegible])사무차관은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이 지난27일 교과서문제와 관련, 발표한 일본정부견해내용에 불만을품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문부성소식통을 인용, 미쓰이차관이 정부견해내용중『정부의 책임하에 시정한다』는 표현에 충격을받고 오가와(小川平二)문부상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오가와문부상은 현재 이의 철회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兵士 망명"

北傀 정전위通告

【워싱턴=聯】北韓軍당국은 미군병사 1명이 北韓에『정치적 망명』을 요청해왔음을 板門店정전위에 통고했다고 美국방성이 28일 확인했다.

짐·프리먼 국방성대변인은 또 駐韓미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도중 실종된 美軍 사병 조셉·T·화이트상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北韓측에 알아보도록 군사정전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日, 蘇태평양함대 監視강화

日北部해역 緊張 고조될듯

【東京=聯】일본해상자위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소련의 오호츠크海와 연해있는 소오야(宗谷)해협에 함정을 배치, 소련태평양함대의 이동상황을 본격적으로 정찰, 감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도오꾜(東京)신문이 보도했다.

도오꾜신문은 해상자위대가 현재까지 함정을 이용한 소련선박정찰활동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美·蘇군사력경쟁이 고조되고있는 이때 日해상자위대가 함정에의한 소련태평양함대의 정찰활동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일본북부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됐다고전했다.

社會漫評

같은 밥상인데…

地平線

문헌을 통해 지금우리가 알수있는 고구려말은 80개 남짓이라고 한다. 이중에는 숫자를 말하는 數詞가 네개 있다. 셋을 密, 다섯을 于次, 일곱을 難隱, 열을 德으로 쓰고있는것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통 딴지같은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말과 일치하고있다. 고대 일본말의 미, 이쓰, 나나, 도와 같은 말이다.

▼고구려말의 숫자와 일본말이 같은것은 일본말이 고구려말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라고 李基文교수는 말하고 있다. 원래 고구려말은 그보다 북쪽에 살았던 부여족이 쓰던 말이었다. 부여말은 압록강을건너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백제와 신라지방에 세력을 뻗치고, 낙동강하류를 거쳐 일본에까지 건너갔던것이다. 우리의말은 이런역사의 흐름속에서 형성된것이었다.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 이땅에서 활동한 미국선교사 [illegibl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동궁식당

새로운 매니지먼트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금번 제가 동궁을 인수받게 되어 교민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계속 저희 식당을 애용해 주시고, 배전의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기주 올림

계절의 진미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1416 VICTORIA PK. AVE.
(빅토리아×에그링톤 SOUTH)

ORIENTAL CASTLE
☎757·6334

동궁식당

새벽장

메아리

서울에서 가볼만한곳 몇군데를꼽으라면, 나는 수산시장과 수육도매시장을 빠뜨리지 않는다。새로 선 시장의 규모와 여기를 거쳐가는 물량에서, 서울의 한 단면을, 서울의 위장이 얼마나큰지를 알수가 있기 때문이다。거기 넘친 활력과 풍요감에서 맛보는, 삶의약동감도 소중한것이라 생각한다。

汝矣島근처 강변도로에 자리한 수산시장은 매일새벽5~6시가 한창때다。밤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온 생선트럭이 이때쯤 닿는다。부려진 생선은 그자리에서 경매되고, 소매도 된다。

언제나 새벽 시장은 各道사투리가 다 섞인 喧騷로 가득하다。발디딜 틈이 없이 붐빈다。

나는 이 雜踏이 좋다。갈적마다 미처 몰랐던 생선종류를 발견하고 그 모양이 다양함에 놀란다。금방 건져 낸듯, 살아서 팔짝이는 생선이 희한하다。물때를 맞추면 신기할이 만큼 값이 싸다。

그러나 큰 생선 여러마리를 살 형편은 아니니까, 나는 그저 어슬렁거린다。몇천원 호주머니 돈을 요량하며, 뭔가 알맞은술안주 횟거리가 없을까 생각한다。정작 생선을 사들 때 보다는, 이때가 더 흐뭇하다。

생선시장에 비하면, 수육시장은 좀 살풍경하다。도축장에 딸린 시설이라, 聯想도 그렇고, 아무래도 피비린내가 난다。

하지만, 그 안은 한번 들여다 볼만하다。

몇백평 시장안이 널찍한 판매대로 가득하다。그한쪽에서, 수10두의 돼지머리가 이쪽을 보고 웃고 있다。안전면도로 털을 곱게 깎은 面相이, 하나처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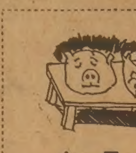
고사를 지낼때 돼지머리의 面相을 가린다니까, 무슨 化粧術(?)이라도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판매대에는 족발이 즐비하다。그옆판매대는 쇠 내장을 파는곳, 그 다음은 돼지 내포를 파는곳。술안주 別味로 치는 내장과 잡육값이, 먼길 온것을 후회않을만큼은 싸다。

이따금이나마 도매시장을 다녀보면, 서울의 부엌살림이 절로 짐작된다。買氣와 값은, 살림형편은 물론 계절과날씨까지 민감하게 반영한다。需給의「異常」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異常」이, 몇달만에 찾은 지난주말의 수육시장에 완연했다。쇠고기판매대가 거의다 비었고, 눈에 보이느니 돼지머리 뿐이던 것이다。

나는 쇠골을 하나 샀으면 했지만, 판매대의 주인은 없다고 잡아 뗐다。금방 한근2천원을 호가 하던 내장고기가 한근 2천3백원으로 올랐다。그 값을 치르며, 식당종업원인듯한 장꾼이,「단골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투덜 대고 있었다。



金昌悅
<編輯委員>

설명은, 워낙 韓牛가 모자란데다가, 시골에서 소를 내지않기 때문이란 것이었다。일전 신문에 난 그대로다。신문에는, 그래서 쇠고기 1만톤을 긴급 수입한다는 기사도 났었다。당초 2만9천톤만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측이 빗나가, 수입량을 늘린다는얘기다。

그 대신 돼지고기는 남아 돌아 탈이다。쇠고기「긴급수입」뒤끝에 있었던 79년「돼지波動」의 재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까닭은 통계숫자로 설명이 되지만, 그런 통계가 나오기까지 정부가하는「예측」과「계획」이 번번이 빗나가는 까닭은 알수가 없다。그 틈에서, 소는 값이 안맞아 못키우고, 돼지는 너무 많이 키워 倒産사태를 빚는다。

그사정이 답답해서, 畜協에 전화를걸었다。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우리는 농수산부 지시대로 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비슷한 말이 흘러왔다。「경제기획원의 物價정책이 따로있어서...」

눈앞 名節의 고기값을 걱정하는데는 있어도, 그 고기의 생산을 걱정하는데는 없는 듯하다。그러다 우리 축산업은「폐사」하고, 그때가서는 내돈을써가며, 먼나라로 고기구걸을 다니겠구나, 지레 걱정이 된다。

失明 參戰용사 왈칵울음

원호病院서 "한국大統領" 소개받고

◇캐나다를 공식방문중인 全斗煥대통령 내외가 29일밤 한국전참전용사들의 원호병원인 생트안병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을 위문하고있다. 【오타와=聯合】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캐나다

僑胞어린이에사인

○…29일상오(한국시간 29일밤) 韓國戰참전용사들의 원호병원인 생트안병원을 찾은 全斗煥대통령내외는 韓·加간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듯 참전용사들과 따뜻한 위로와 환영을 서로 교환했다。

全대통령내외가 이날 헬기로 병원앞뜰 잔디밭에도 착하자 카도레병원장내외는 한국전쟁30년만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한국의 국가원수내외를 따뜻하게 영접했고 7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원 金金玉양은 환영의 꽃다발을 全대통령에게 안겨줬다。

이어 全대통령내외가 병원입구로 걸어가자 몬트리올거주 60여명의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대한민국만세』『대통령각하만세』를 외쳤고 全대통령내외는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이들 교민들에게 다가가『반갑습니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눈 全대통령내외는 정윤희양등 교포어린이 2명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했는데 정양이 사인을 요청하자 즉석에서『정윤희양에게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사인을 해주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카도레 병원장의 안내로 병원3층회의실로 올라가 芳名錄에 서명한뒤 카도레병원약사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받고 잠시 환담。

全대통령이 환담을 끝낸뒤 2층강당에 마련된 환영식장에 들어서자 1백여명의 韓國戰참전용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全대통령을 환영했다。

환영식에서 라몽타뉴 캐나다國防相은 환영사를 통해『양국간에 全대통령의 캐나다 공식방문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全대통령은 이 병원을 꼭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각하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맞이하게된것은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라몽타뉴國防相이『이제 캐나다국민의 진정한 친구인 각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하자 우렁찬 박수소리가 강당을메웠다。

全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우리를 위해 지금까지도 격정을 아끼지않고있는 모든 參戰勇士여러분들의 뜨거운 애정과 두터운 신의에 깊은 사의를표한다』면서『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있어『그날의戰友』만이 아닌『영원한戰友』라는것을 웅변으로말해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카도레院長은 감사의말을 통해『한국민 모두에게 平和와 영원한 자유가 깃들기를 바란다』며 한국말로『감사합니다。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답례。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壇下로 내려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부상, 불구의 몸으로 아직까지 휠체어에 의지하고있는 10여명의 환자용 백발이 성성한 35명의 참전용사들과 따뜻한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대통령문장이 든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

全대통령내외가 참전용사들과 악수를 나눌때 이들은 태극기를 손에 꼭쥐고 있었고, 失明한 어느 참전용사는 옆자리에있던 환자가『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기도했고 옆부인 李여사는 이들에게 선물을주면서 英語와 佛語로 따뜻한 위로의 말과함께 쾌유를 빌었다。

全대통령은 35명의 참전용사들과 악수를 나눈뒤 로이즈·플러머 캐나다 韓國戰참전총연합회 회장등으로부터 캐나다 방문기념패를 전달받았다。

全대통령내외가 헬機에 탑승하자 교민들은『대한민국 만세 대통령각하 만세』를 또다시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고 全대통령내외는 헬기가 이륙한 뒤에도 잠시 문을 닫지않은채 손을 흔들어 답례를 보냈다。

이날 병원입구와 2·3층복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이름으로「환영全斗煥대통령 내외방문」이라고 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全斗煥대통령이 28일하오 大使관저에서 베푼 僑民을 위한 리셉션에서 1천2백여 교민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환담하고있다. 【오타와=聯合】

令夫人, 同窓만나

○…週末인 28일하오(현지시간) 오타와의 한국대사관저 정원에서 있은 僑民을위한 리셉션에는 캐나다여러곳에서 1천2백여명의 교민가족들이 모여 일대 성황을 이뤘다。

8백여평의 넓은 잔디정원에는 오타와거주 교민1백여명을 비롯 터론토지역의 8백여명과 몬트리올 배쿠버 에드먼턴 캘가리지역등 캐나다전역에서온 교민들로 발들여놓을틈이 없을 정도였으며 관저 발코니에선 金勝舞씨가 지휘하는 30명의 터론토韓人교향악단이「고향의봄」「몽금포타령」「양산도」등의감미로운 선율을 연주, 한층 흥을 돋우었다。

僑民리셉션엔 加전역 1,200여명참석盛況

30여 韓人교향악단 "고향의 봄"등 演奏

全斗煥대통령과 令夫人 李順子여사가 李揆現대사내외의 영접을받으며 리셉션장에 들어서자 교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모국의 대통령을반겼고 앞을 다투어대통령내외와 악수를 나누려고 몰려들어 가벼운혼잡을 빚었다。

교민들은『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를 연발했고 백발이 성성한 한僑民 할머니의 눈에는 이슬이맺히기도 했다。

令夫人 李여사와 京畿女高 46회 동창이라는 徐丙英·趙愛姸씨등 6명은 李여사 손을 꼭 잡으며『24년만에 만나는것』이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全대통령이 교민들에 둘러싸여 음료수를 들며『라스팔마스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7시간5분이나 걸렸다』고 환담을 시작하자 터론토에서 온 한 교민은『저희는 버스로 5시간을 달려왔읍니다』고 말해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全대통령은『아프리카에 가보니 어느새 진출했는지 수많은 동포들이 자리를잡고 열심히들 살고있더라』고 소개하고『해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개척자이며 애국자』라고 격려。

全대통령은『우리나라는 매년 6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처럼 일찍 해외에 나가 넓게 터를 잡고 살면서 친척도 부르고 또 기회있을때마다 고국도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말해 박수를 받았다。

全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이나 늦도록 교민들에둘러싸여 환담한뒤 수많은교민의 손을잡고 작별인사를 나눴다。

이어 全대통령은 대사관저 거실에 잠시들러 韓人교향악단의 尹汝和이사장(56)과 金지휘자를 불러 치하하고 숙소로 향했다。

이날 교민리셉션이 열린 대사관저와 공항입구에는 현지인을 포함한 10여명의 反韓人들이『캔두(원자로)를 팔지말라』는 등의 反국가적이고 反캐나다적인 표어를 적은 피켓을 들고 全대통령의 캐나다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잠시벌이기도했다。

학교에가서 자랑

○…캐나다僑民사상 처음인 1천2백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이날 리셉션장에서 교민들은 모두들 먼이국땅에서 우리의국가원수를 만난 감격에 젖어『정말 한국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앞으로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을 간직하게 됐다』고 기뻐했다。

터론토에서 50여회원을 갖고 있다는 한국숙공문화협회장 李根須씨(67)는『全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교민들, 특히 자라나는 2세들에게 조국관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며『커가는 우리 국력의 상징이며 큰 자랑거리가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오타와=尹國炳특파원】

「拒否」와「固守」…
日政府, 교과서문제에 새陣痛

해설

일본정부가 오는 85년부터 왜곡교과서를 시정하기로한 26일의 미야자와(宮澤)성명에 대해 한국정부가 불만을 표시하면서도「일본정부가책임지고 시정하겠다」고 천명한점을 일단 평가, 일본의 수습안을 받아들인데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정작 쉽게 타결될것으로 보였던 중공측이 오히려「구체적인 시정방안이 제시되지않았다」는 점을 들어 거부함으로서 일본정부는 당혹하고있다。

중공의 吳學謙외무차관은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하겠다고 말하고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것은 왜곡교과서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생각이 없으며 당장의 곤란을 모면하자는것이라고 지적, 강경한어조로 비난했다。

중공이 미야자와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발표된 일본정부의 수습방안을 거부한 이유는 ①대륙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으며 ②왜곡교과서의 구체적시정방안이 제시되고 있지않다는점을 들었다。

대륙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과 반성은 중공이 우선적으로 요구하고있는 사항이다。

72년 日·중공 공동성명을 깃점으로 國交가 정상화된 원점이 바로 대륙침략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성이었던점을 감안하면 이 원점이 흐려지고있는 상황에서는 일·중공간의 우호협력은 구축될수 없다고 중공은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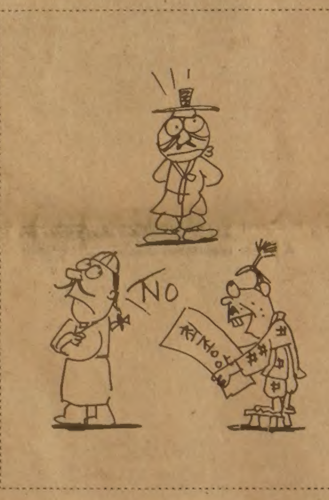
특히 23일 스즈끼수상의 기자회견에서 대륙침략에 대한 인식을 묻는 기자질문에「사후 역사가에 맡긴다」고 언급을 회피한데 대해 중공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일본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스즈끼수상이 과거의 대륙침략에 대해 분명히 침략이라고 언급하지 않은것은 일·중공 공동성명에서 표기되었던『과거의 전쟁에대한 책임과 반성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했다。

중공측은 3년주기의 검정제도를 1년 앞당겨 85년에 사용하는 교과서부터 고치겠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는것은 결국 2년동안은 歪曲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공이 주장하는「즉시修正」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는 29일 외무성과 문부성이 합동으로 중공측의 거부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데 이어 30일에는 미야자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외무성과 문부성의 관계간부가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일본정부는 미야자와 수습방안이「최종적인것」임을 재확인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中共, 스즈끼訪中때 大陸침략 責任등 擧論
共同성명에 明記관철 속셈

중공측에 일본정부의 수습방안에 대한 진의를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0일에 열린 일본정부의 긴급대책회의가 미야자와수습방안을 최종안으로 다시 확인한 이유는 이미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안에 대해 양해한 점을 들어 이와 똑같은 관계에 있는 중공정부에 대해 또다른 수습안을 제시하는것은 불가능하며 중공정부가 지적한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성은 오가와 문부상과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보충설명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공이 일본정부의 수습방안을 거부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스미(三角)문부성 사무차관이『정부의 책임아래 교과서를 시정하겠다』는것은 교과서 검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것이므로『책임을지고 물러가겠다』며 사표를 내던져 內憂外患에 빠져있다。

외무성은 중공의 일본측수습방안에 대한 거부가 9월하순 예정인 스즈끼수상의 訪中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중공정부는 교과서문제와 스즈끼수상의 중공방문과는 분리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있어 교과서문제가 스즈끼수상의 중공방문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않을것으로 일본외무성은 판단하고 있으나 적어도 스즈끼수상의 訪中을계기로 日·中共공동성명을 다시발표,『과거의 대륙침략전쟁에 대한반성과 책임』을명기할것을 관철할 속셈인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

골초왕自稱 하루 담배8갑
泰53세상인 30년계속 肺수술할판

한때 타이에서는 자신이 골초왕이라고 자칭하면서 끽연을 즐기던 53세난 상인 차오·눈추씨는 그렇게 즐기던 담배맛이 바야흐로 소태맛으로 변했다고。

차오씨는 자신이 지난30년이상이나 하루 담배 8갑을 피워왔다고 기염을 토하던 지난해 그만 발병, 결국은 지난 27일 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됐다고。

그런데 방콕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이 사실을 전면에 게재하는등 대서특필 했는데 차오씨가 입원한 방콕시내의 피야·타이병원 의사들은 줄담배로 상할대로 상한 차우씨의 폐한쪽을 결국 잘라내야만 할것 같다고。

그는 지난해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타이의 제1급 끽연가라고 소개할 당시만해도 자신은 식사하거나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줄곧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기염。【방콕=聯合】

◇13일 催眠후 8㎏減量
최면을 통한 체중감량법 시험을 통해 13일동안 최면상태로 수면을 취한뒤 8㎏을 줄이는데 성공, 28일 깨어난 아드리엔·세치니부인(31)이 기자와인터뷰를 하고 있다。13일내내 음악을 들으면서 물과 주스등 유동식만을 공급받았던 세치니 부인은 신체적으로 아무이상도 보이지않았다。뒤쪽에 서있는 사람이 최면술사 재키·뉘게씨。【니스28日 AP=聯合】

해外토픽

胃일부 永久폐쇄
★美 비만몽 體重 줄이려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불어나기만하는 몸무게 때문에 고심하던 20여명의 비만증환자들이 날씬한 몸매를 가져보고싶은 마지막 바람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胃)의 일부를 영구폐쇄시키는 수술을 실시토록 허락했다고。

이같은 수술은 미국뉴저지의과대학연구팀이 최소한 정상체중보다 45㎏이상이 더나가는 비만증환자가운데 자원자들에게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지난7월 이수술을 받은바 있는 바버러·록스부인(34)은 몸무게가 수술전의 1백14㎏에서 49·4㎏이나 줄었다면서 이로 인해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종전과 같은 비만증세 또한 결코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즐거운 비명。

그러나 시술을 위해서는 몸무게가 최소한 정상체중보다 45㎏이상이 더나가야할것과 수술후의 식생활습관의 철저한 변화가 요구되는등 이 수술이 갖는 엄격한 요건때문에 수술대상자들은 엄선되고 있다는 것。【피스캐터웨이=UPI】

美최고甲富 해운왕 루디윅
포비즈紙 12명의 억만장자公開

뉴욕의 해운왕 다니엘·K·루디윅씨(85)를 비롯한 美國의 12대갑부명단이 뉴욕에서 발행되는 포비즈誌의 최신호(9월13일자)에 의해 공개됐다。

포비즈誌의「美國甲富보고서」에 따르면 12명의 미국人억만장자 가운데서도 단연 1위는 뉴욕에서 은둔생활을 하고있는 노령의 해운왕 루디윅씨로 밝혀졌다。

「갑부보고서」가 밝힌 루디윅씨의 순수재산은 20억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그다음은 고든·P·게티씨。

사망한 억만장자 존·폴·게티씨의 네째아들인 고든·게티씨는 연간 배당금만도 8천3백만달러가 나오는 14억달러상당의 석유주식 3천1백80만株를 비롯, 부친이 남긴 재산가운데 33%를 상속받았다。

이와함께 달라스의 석유재벌 고H·L·헌트씨의 직계가족가운데 5명이 美國의 12대갑부명단에 올려져있어 헌트家의 막강한재력을 과시하고있다。

헌트家의 넬슨·벙커 허버트 라마르·헌트씨를비롯 이들의 누이동생인 마거리트·헌트·힐및 캐럴라인·헌트·쉴코프여사가 각각 10억달러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이 갑부보고서는 밝히고있다。

포비즈誌가 밝힌 12大甲富가운데 그밖의 甲富들과 이들이 소유한 재산정도는 다음과 같다。

▲페리·R·배스및 비들시드·R·배스(헌트家에 이어 미국제2위의 민간석유재벌)=20억달러이상

▲필립·안슈츠(석유·광물및 부동산재벌)=10억달러이상

▲포리스트·마즈·SR(마즈社)=10억달러이상

▲데이비드·패커드(휼렛·패커드社)=10억달러이상

▲마빈·데이비스(덴버석유재벌)=10억달러

이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미국의 12大甲富중 9명이석유재벌이며 이들중 반수가량이 텍사스州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있다。

한편 美國의 소문난 재벌 데이비드·록펠러씨는 5억~10억달러사이의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24명의 美國부호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는 정도에 그치고있다。

이밖에 포비즈誌가 조사한 美國의 4백大갑부중『가장 가난한 부호』는 9천1백만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애플·컴퓨터社의 아마스·C·마쿨라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비즈社는 그러나 美國의『초메가톤級』갑부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공개되는것을 꺼리고있어 이같은 집계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고있다。【뉴욕=UPI】

4人幇지지 長期刑
★中共8명 10년이상刑선고

中共은 毛澤東의 미망인 江靑을 주축으로한 四人幇의 지지자8명을 재판에 회부, 10년이상씩의 장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극좌파의 주도하에 전개됐던 문화혁명의 章에 종지부를찍었다고 北京으로부터의 보도들이 30일 전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親중공계신문인 文匯報는 四人幇지지자들이 江靑從黨에 가담『政府전복과 정권찬탈을 기도한』죄로 최고18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홍콩UPI=聯合】

臺灣·印度위협못해

중공은 기술적·경제적·정치적 문제점 때문에 소련침공을 저지할만한 이렇다할 능력을갖고있지못하며 대만과 인도에대해서도 속가적인 군사위협을 주지못하고있는것으로 美마이애미대학의 토이펠·드라이어박사의 연구결과 28일밝혀졌다。

이보고서는 4백50만의 중공인민해방군은 세계최대규모의 병력이기는 하지만 장비가 불충분할뿐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하고 中共공군은 지난50년대 한국전쟁때보다 더욱 약화되어 있으며 소련의 재래식및 핵공격에 대처하기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전투력은 특기할만한것이 못된다고 말했다。【워싱턴UPI=聯合】

◇皇太子의「세계최초」迎接
세계최초로 南極과 北極을 통과하여 세계일주를 한후 29일 템즈江岸의 틸버리에 도착한 래눌프·파인즈경(右)과찰즈·버튼씨(左)가 그들의 후원자인 찰즈황태자의 영접을 받고있다. 【그리니지29日 AP=聯合】

Grant Brown

G·M. 새차나 트럭을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절호의 찬스!

금번 G.M회사에서는 경제불황 타개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82년도형 차를 가격 인하해서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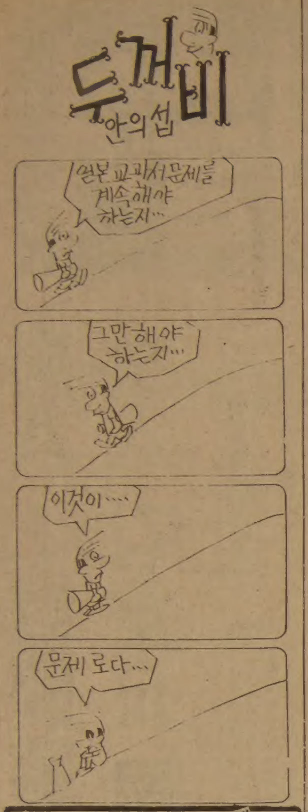
	모델	인하가격
◎폰티악	J2000	$900
	6000	$700
	ACADIAN	$700
	PHOENIX	$500

	모델	인하가격
◎BUICK	SKYHWAK	$900
	CENTURY	$700
	SKYLARK	$500
	G.M.C 트럭	$400
◎캐딜락	CIMARON	$1,000
	SEVILLE	$2,500

이한구

※만약 J2000을 사실때 종전가격이 $10,000인 경우 : 〈$10,000－$900－종전 DISCOUNT＝구입가격〉

1575 WESTON RD. WESTON ☎ : 247－7161(B) 977－273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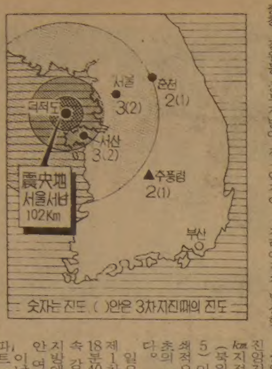


中部지방에 3차례微震

震度1~3 서울등 日曜새벽 "충격"

첫 群發지진…震央은 德積島

29일 서울을비롯한 경기、충청、강원등 중부지방에 진도1~3도 (리히터계기)의 약진이 3차례에걸쳐 발생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서울서남쪽 1백2㎞지점인 경기 德積島앞바다 (북위37·2、동경128·5)이며 동일진앙지에서 연쇄적으로 3번발생한 국내최초의 群發지진이었다고 밝혔다。

일요일새벽을 기습한 이날 제1차지진은 29일 새벽3시18분40초부터 약12초동안 계속 강도3으로 서울등 중부지방에서 감지되었고 4분동안 여진이 뒤따랐다。

이날새벽 서울시내 고층아파트 일부주민들은 방바닥이 흔들리고、아파트건물 자체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뛰어나오기도했다。

이날 1차지진은 서울·瑞山등 중부지역에서는 강도3으로、秋風嶺일원에서는 강도2로 감지되었다。

또 2차지진 (강도1)은 1차지진후 12시간가량 지난 하오3시29분부터 10초동안、3차지진 (강도2)은 하오3시34분부터 12초동안 각각 계속되었다。

금년들어 우리나라에는 지난2월14일 서울부지방에 강도3의 지진이 발생한것을비롯、모두 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全南北 腦炎증세 擴散

井邑·高敞서만 이틀새 25명發病

【井州】전북 井邑·高敞·扶安지방에서는 28·29일 이틀동안 25명의 뇌염증세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30일 井邑아산병원에 따르면 고열 구토 경련등 뇌염증세로 지난28·29일 입원한 환자는 井邑7명 高敞15명 扶安3명등 모두 25명이며 대부분 1세부터 7세까지의 어린이들이다。【鎔】

全南 환자百67명

【光州·木浦】전남도내에서는 30일현재 모두 1백67명의 뇌염증세환자가 발생、11명이 사망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들어서는 하루평균 10명이상씩 진단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도내 종합병원이 관내병원을 대상으로 뇌염증세환자를 집계한 결과에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뇌염증세환자는 전남대병원 72명、광주기독병원 19명、조선대병원 14명、목포성골롬반병원과 시립병원을 합쳐 58명、海南및 普成종합병원 각 2명등 모두 1백67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중 1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퇴원했으며 나머지 1백29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있다는것。【鎔】

시외버스 곤두박질 승객24명 死傷

【旌善】30일상오11시40분께 강원도旌善郡旌善邑廣河2리 속칭 비행기고개에서 강원여객소속 강원5아1081호시외버스 (운전사 박인홍·50)가 운전부주의로 높이1백50m아래 낭떠러지로굴러 승객석옥녀씨 (64·여·旌善郡北面南谷里307)와 이용우씨 (81·旌善郡旌善邑橘岩里) 등 2명이죽고 유춘옥씨 (73·여·旌善郡旌善邑鳳陽里)등 22명이 중경상을 입고 旌善읍 대성병원과 정선병원등에 분산 가료중이다。【鎔】

아내 죽이고 자신도 自殺

【釜山】30일상오8시45분께 釜山鎭區開琴1洞산54 이영수씨 (46)집 아래방에 세든 金相圭씨 (48)가 아내 李孫出씨 (42)를 흉기로 목등4군데를 찔러 숨지게 하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鎔】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國校生에도 性교육

이번學期부터 初·中·高에 學習지도 資料

문교부는 30일 이번2학기부터 전국의 국민학교와 중·고교에서 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급학교별 성교육학습지도자료를 마련해 배포했다。

문교부가 이번에 성교육에 관한 지도자료를 만들게된것은 사회발전과 함께 성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범람하고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발달도 조숙화하는 경향이 뚜렷해 성교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뤄진것。

새로나온 성교육학습자료는 국민학교용 (서울시교위제작)·중학교용 (경북도교위제작)·고교용 (부산시교위 〃) 등으로 각급학교별로 수준에 맞게 개발된것인데 도덕·윤리·체육·과학등 기존교과서에 제시된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성의지식과 지도상의 유의점등이 기술돼있다。

문교부는 지난78년「순결교육」이란 성교육에관한 장학지침을 낸바있으나 본격적인 성교육자료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교용=남녀의 나이별 신체적 차이와 고학년에는 결혼의 뜻、남녀간 사랑의의미、간단한 남녀 성기 지식과 체모의 차이점、생리현상의 이유와 그 대처방법등이 기술돼 있다。

◇중학교용=올바른 이성관과 순결교육에 대한 지도방법、남녀의 성욕의 차이와 남녀 성기의 상세한 구조기능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고 고학년용에는 성병에관한 설명、여성의 심리、분만과 모자보건에 관한 지식、가족계획의 의미와 방법등이 적혀있다。

◇고교용=성적충동과 임신때 영양관리、유산에 관한 지식등이 있으며 성병의 종류와 예방방법、순결에 관한 윤리적 인식、페팅의 이해와 종류、지나친 자위행위의 폐해등이 수록됐다。

日역사 歪曲규탄 1人 시위벌여

애국선열묘소정화추진위원장 陳栄鎬씨 (55)가 30일상오10시 서울鍾路區中學洞18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일부각료의 망언을 규탄하는 단독시위를 벌였다。

陳씨는 이날「의병」이라고 쓴 머리띠를 두르고 손에 태극기를들고 대사관앞에 나와『대사나오라』며 외친뒤『스즈끼(鈴木)수상은 침략의 史實대로 교과서를 즉각고쳐라』는등 5개항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단을 뿌렸다。

陳씨는 25분동안 혼자 시위를하다 출동한 경찰에의해 제지를 당하고 귀가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교과서 왜곡과 일부각료의 망언에 항의、단독 시위를 벌이고 있는 陳씨。

大韓辯協 어제 창립30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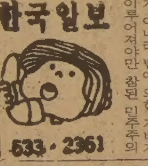
"사회正義실현 所任다짐"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로 창립30돌을 맞았다。

대한변협(회장 金濟鉉)은 이날하오6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우리는 창립30주년 기념일을맞아 용기와 예지 그리고 불굴의 실천력으로 기본권옹호의 사명과 사회정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3개항으로 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자리에는 兪泰興대법원장、丁來赫국회의장、金相浹국무총리서리등 3부요인과 安命仁법무장관、金淑鉉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인사등 회원다수가 참석、법률문화의 창달과 인권옹호에 앞장서온 대한변협의 창립30돌을 축하했다。

金濟鉉변협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권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져야만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울수있다는 신념에서 우리는 사회의 목탁으로서 또는 오늘의 세대의 소금으로서 구실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능력의 부족과 여러가지 여건으로 그 성과가 미흡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口傳민요 「苧山八邑歌」

모시主産地 韓山서 발굴

【大田】韓山세모시의 본고장인 충남 舒川郡 韓山面·麒山面·苧山면 일대에서 「苧山八邑歌」라는 口傳민요가 발굴되어 귀중한 민속자료로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苧山八邑歌」는 종래의 옛가락에 비해 음률이나 가사내용이 보다 현대화한것으로 현대와 작자를 확인할수없으나 李朝후기의 토속민요로 추정된다고한다。

이민요는 徐承諸씨 (49·문화공보실 학예관)팀이 발굴했는데 도는 새민요와 함께 이고장에 전승되는 苧山八邑길쌈놀이를 민속작품으로 엮어 올가을 光州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85명의 현지주민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다。

徐씨등 민속자료 조사반은 지난 25일까지 한달동안 현지의 촌로들로부터 갖가지 특유의 설화를 수집하고 아낙네들의 구전음률를 녹음하여 金榮均·朴弘男씨등 지방 국악계인사들에게 옛가락 그대로의 민요를 정리토록 위촉했다。

이 길쌈놀이는 세모시의 주산지인 韓山을 비롯 鴻山·林川·舒川·庇仁·定山·保寧·藍浦등 옛날의 郡縣별 모시농사및 모시짜기의 경연대회를 흥겨운 율동과 구성진 가락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어화 [illegible]이 懷德하사
千里東方 正仁이랑
이山 저山 定山없인
풍경도 그지없소。
푸른잎이 靑陽이오
花草석인 藍浦바다。
千水萬波 내린물이
굽마다 舒川하니
韓山의 張良이는
代代로 이어지네。
날아가는 飛鴻山아
風光을 바라보니
林川내 여기로다。
淸風明月 네아니면
뉘로하여 保寧하리
어헤어헤 苧山이오
八邑이 다萬歲일세。【鎔】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발명가 黃圭鳳씨

자동점화 담배를발명한 黃圭鳳씨 (韓洲實業대표이사)가 29일밤 8시께 일본東京신바시 다이이찌 (新橋、第一)호텔 객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북金泉태생인 黃씨는 한평생을 발명에 종사、자동점화담배로 70년 제1회세계특허박람회에서 金상을 받았고、73년 耐水點火全으로 세계특허권을 획득했었다。

유족은 미망인 許貞愛여사 (57)와 1남2녀가 있다。연락처 ☎553-3630

야박한 醫療施惠

해외勤勞者 귀국하면 각종保險 해약

風土病등 앓아 번돈 날리고 就業때부푼 꿈 산산이깨져

"綜合진단·災害보험 연장"바라

해외취업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이 너무 야박하다。中東등 해외에 취업하는 단순 근로자들은 취업과동시에 소속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재해보험」에 가입、현지에서 생긴 상병이나 질환을 치료받을수 있으며 또 그가족들도 근로자의 출국과 함께 유효한 1종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자 재해보험은 소속회사와 보험회사의 계약에따라 근로자의 고용기간 (주로1년)이 끝남과동시에 해약돼버려 귀국후 발병하는 근무지의 풍토병등 각종질환에대해서는 의료보험·산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게되며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여서 결국해외취업근로자가 귀국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모두 의료보장권밖으로밀려나고 있다。

이때문에 많은 해외취업근로자들은 귀국후 열대성 풍토병등 각종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도 의료보장혜택을 받지못해 해외에서 땀흘려 번돈을 치료비로 날리는 이중고를 겪고있다。

이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귀국과 동시에 종합진단을실시해 치료를 해주든지 해외취업으로인한 발병일 경우에는 근로재해보험의 연장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仁川市道禾洞83 朴錫浩씨 (32)는 S건설 용접공、H주택정비원등으로 78년부터 지난3월까지 카타르 사우디등지에서 일하고돌아온후 몸에 원인모를 이상이 생기기 시작、전신의 기능이약화되었으나 의료관계보험혜택을 전혀 받을수없어 입원치료는 엄두도 내지못하고 한의원을 다니며 자가치료하고 있다。

또 仁川市朱安洞594 李正植씨 (43)도 7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노무자로 이란 쿠웨이트등을 다녀온후 극도의 전신무력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의보혜택이 전혀없어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1천여만원이 치료비로 모두 나갔다는 것。

또 仁川市間石洞428 趙成旭씨 (53)도 80년 10월 사우디에취업했으나 몸이 아파 지난3월 회사에의해 강제귀국당한후 종합진찰결과 위염이란는 진단을받았는데 그동안 치료비로 2백만원을 써버려 서민주택이라도 마련해보려던 해외취업의꿈이 깨져버렸다는것。

연세대학교 熱帶의학 연구소에따르면 해외취업근로자들은 귀국후피부병、안질、기생충 성질환등 열대성 풍토병이나 현지에서의 환경변화、가족과의 격리등으로 신경정신계통의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는것이다。

또 노동부집계에따르면 81년도 中東취업근로자의 재해중 48%가 업무외의 재해로 나타났고 그중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22·6%로 가장높고 그다음이 소화기、피부비뇨기、안과、치과의순을 보이고 있는데 질병의원인은 대부분이 열대성풍토와 관련된 사막기후、음료수、砂風등이 있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의사는『해외취업근로자들의 풍토병등 질병이 현지생활때문에 얻은 질환으로 찾아오는수가 있는데 보험제도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귀국후 몇개월만이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협의해서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귀국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건강진단등을 실시、풍토병유무를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열대지역근무중의 질병을 등록하는 길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해외에많은 인력을 송출하고있는 D업체에 따르면 근로자송출시 국내보험회사와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있으나 보험기간은 고용기간만료와함께 끝나기때문에 근로자가 귀국후 발병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해줄수가 없다고말했다。

한편 보사부의 보험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취업근로자자신의 의료보장문제는 「근로재해보험」규정에의거、사용자와 보험회사간의 문제이고、그 가족들에대해서는 취업기간동안은 1종의료 보험혜택을 주고있으나 대부분의 해외진출기업들이 근로자고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있고、귀국과 동시 또는 귀국시 현지공항에서 고용계약을 해약해버리기때문에 보험규정상 해고된 근로자의가족에 대해 요양급여를 제공할수 없다는것이다。【崔成基기자】

◇수확의 손길 일찍 찾아왔던 가뭄과 어물어물넘어간 늦장마, 큰피해없이 지나간 태풍때문에 올해는 대풍이 예상된다는 반가운 소식。통통하게 익은 고추를 손질하는 농가의 표정에서 금년가을의 여유가 읽힌다。【경기金浦郡高村面=權周勳기자】

전기밥솥등 不良家電品

70개업소 또摘發

전기다리미·전기남비·곤로·밥솥등 전기용품과 KS표시 백열전구、슬레이트등을 만드는 70개업체가 불량제품을 제조한것으로밝혀져 44개업체는 형식승인취소및 생산중단 조치와함께 시중에 내놓은 제품을 수거파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22개업체는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받았다。

공업진흥청은 30일 소비자들이 많은 전기용품과 KS표시상품 29개품목에 대해 전국24개 도시의 백화점·시장·유통상품을 거둬들여 품질시험한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진청에 의하면 전기용품의 경우 평균온도、상승기준、강도 불량등으로 화재·감전위험이 크며、KS표시품은 전구는 밝기가 떨어지거나 수명이 모자라 슬레이트는 두께가 기준에 미달했었다고밝혔다。

이런한 향수

스포츠寫眞 50년의 證人 張点同씨

평생찍은 필름 4톤트럭 5臺分

요즘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스포츠50년전」을 갖고 있는 스포츠사진가 張点同씨 (69·사진)는 하루를 喜悲속에서 보낸다。

이 멋진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보고 관람객들이 탄성을 지르면 기쁨에 겨워하다 저녁이 되면 허탈감과함께 평생동안 찍은 사진을 생활때문에 팔아야 하는 아픔을 되씹어야한다。

「張点同씨」하면 「한국스포츠50년의 산증인」、또는 「약방의 감초」로 널리 알려져 있다。지난 반세기동안 운동경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카메라를 든 張씨를 보는것이 어렵지 않았다。

張씨가 스포츠사진에 미치기 시작한것은 선린상고에 다니던 1928년부터。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으나 순간순간의 변화에 매료돼 점점 빠져들어갔다。스포츠행사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가게끔 되었다。

그동안 찍은 필름이 자그마치 4톤트럭 5대분량。찍은 필름이 한장 한장 늘어남에 따라 忠武路에서 경영하던 一九백화점과 3곳의 지점등 재산은 점점 줄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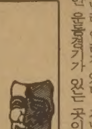
1937년에는 사진찍는 것만으로도 부족、스스로 야구동하고 해방후엔 一九야구단을 창단、주한미군 야구팀과 시합을 갖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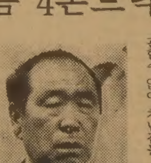
6·25란 소용돌이를 거치며 백화점도 불타고 필름도 많이 잃었으나 스포츠사진에 대한 열의는 시들지 않았다。기록을 정리하겠다는 뜻에서 자신이 찍을수 없었던 1900년대초의 사진까지 YMCA등을 찾아다니며 찍어두었다。

너무 많이 찍다보니 보관이 문제가 됐다。살고있는 아파트에 다 보관할수 없어 처남집등 4곳에 분산 보관하고 있다。그동안 16㎜와 35㎜ 스포츠영화、기록영화등을 만들어 정리도했었다。

『짚신감발에 축구를해도 스포츠정신이 있었고、관중들의 호응도 지금 못지않았지요』1909년대의 축구경기사진을 소개하며 張씨는 아련한 향수에 잠긴다。

『지금은 시설도、경기수준도 옛날과 비교할수 없을만큼 좋아졌으나 지나치게 승부에집착하는 것 같아요』사진을 전시할 종합전시장을 갖는게 꿈이라는 張씨는 오늘날의 승부사들이 마땅치가 않은 모양이다。【鄭在龍기자】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저희 도매상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많은 주문에 미처 인원이 부족해서, 제때에 배달 못 해드린 분들도 있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차량 및 인원을 증가해서 더욱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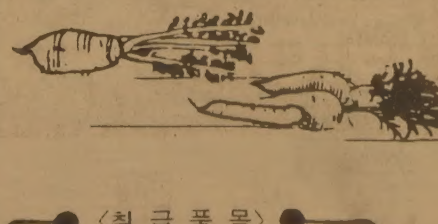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야채도매사업이니 만큼 최저의 저렴한 가격(온타리오 FOOD마켓, 품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봉사중이오니 배전의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리겠읍니다.

(PICK—UP 또는 주문) ($150이상)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폴란드, 오늘 大規模시위

자유勞組 2돌맞아 全國民에 參與호소

◇陸路로 시리아에 베이루트—다마스커스公路로 육상철수한 1천5백명의 팔레스타인해방군(PLA)을 실은 트럭들이 29일 시리아에 도착하고있다. 【제이데(시리아) 29日 AP電송=聯合】

政府, "계엄령위반 嚴斷"

主教團선 對話로 문제해결 촉구

【바르샤바UPI聯合】 지난해 12월13일의 계엄령선포와 함께 地下로잠적한 폴란드자유노조지도부는 28일 두차례에 걸친 지하방송을통해 오는31일 자유노조결성의 길을열었던 역사적인 그다니스크협정 체결 2주년을맞아 당초 예정대로 대대적인 가두항의시위를벌이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軍政지도자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黨제1서기겸 수상은 29일 南부포즈난소재 육군기갑사관학교에서의 연설을통해 국민들이『지나친 행동과 무책임한데모』를 자제해주도록 호소하면서『계엄령은 설사 좋든 마땅히 法으로 존중되어야한다』고 전제 계엄령위반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폴란드 가톨릭주교단은 28일 주교단9人평의회가 초안을 작성, 요제프·글렘프대주교가 서명한 敎書에 군사정부와 자유노조의 대결이 국가를 재난에 빠뜨리고 만것이라고 경고하고 양측이냉정을 가다듬어 평화와 안정속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자유노조지하방송 솔리다르노스크는 민병대원들에 대해 31일의 시위와 관련,당국의 진압명령에 불응하고 부득이 시위군중을 체포 또는 심문할 경우에도『최소한의 열의』를 발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보안군에 대해서도 시위군중을 체포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지 말도록 호소했다.

31일의 항의시위는 계엄령선포이래 최대규모이자 가장위협적인 시위가 될것으로 보여 폴란드는 한동안의『강요된 평온』을 깨고 또다시 풍우前夜의 긴장에 휘말렸다.

레바논軍, 首都전역 장악

8년만에 처음으로

레바논軍은 30일 8년만에 처음으로 수도베이루트시전역에 진입, 보안계획에 따라 병영을 되찾고 관공서와 기타 경제시설들을 경비할 계획이라고 국영 베이루트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철수가 일단 완료되면 다국적평화유지군이 1개월의 주둔기간중 남은기간동안 西베이루트에 체류하며 레바논軍警을 도와 보안기능을 떠맡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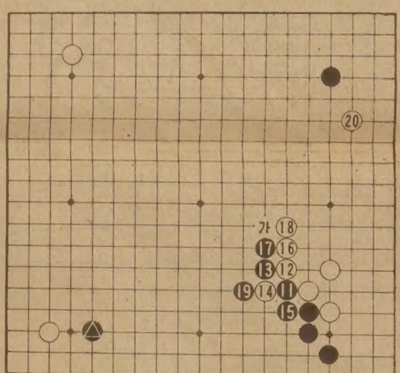
이와함께 베이루트 국제공항은 앞으로 10일이내에 재개통될것으로 전해졌다. 【베이루트=S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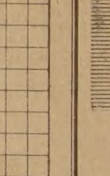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白, 한걸음 앞서다

第1局 第3譜 11~20
白(7段)盧永夏
黑(6段)洪鍾賢
(각4시간·덤5집반)





예상했던대로 黑은 11, 13으로 밀어젖힌다. 좌하귀에서 ▲표로 걸친점을 배경삼고 하변을 커다랗게 차지하려는 일관된 세작전이다. 그리고 이것은 吳淸源정석이라하여 자주 이용되는 형인때문에 일단 결단을 내렸으면 주저할 필요가 없을터인데도 洪6단은 신중하게 5분간을 확인했다.

白18이 新手였다. 보통이면 10은 「가」에 젖히고 黑19, 白18로 될곳이지만 盧7단은 순간적재치로 黑19를 예상하고 白20에 선착할 작전이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黑도 19로는 좀더 궁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대세력의 뜻을 관철할 의도는 알만하지만 白20을 당한만큼 어쩐지 포석에서 한걸음 뒤진 느낌. 따라서 黑19는 평소의 洪6단답게『참고도처럼 黑1에先行하고 白2면 黑3, 5로 싸워야 타당한 것같다』는 趙南哲8단의 국후의 전이다. 그러나 당장은 黑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눈치. 다음수가 주목된다. 【一凡】

한국男女, 단체 휩쓸어

男A, 1회優勝 스웨덴 격파
女A, 강호日 물리쳐 2連覇

서울國際탁구

梁英子·韓美玉·李美雨·申得花·安海淑·와다등 個人戰8강
1회大會챔피언 黃男淑, 金恩喜에 패퇴

◇탁구强國 굳힌 2連覇 2連覇의 영광을 차지한 한국여자A팀의 金忠勇감독이 주전 安海淑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 우승트로피를 자랑하고있다.

<제5일> 홈팀 한국이 제2회 서울 오픈 국제탁구선수권대회의 남녀 단체전을 석권했다. 한국남자A팀은 29일 잠실종합체육관서 속행된 대회5일째 남자단체전 결승전서 국가대표주전 金浣·金琦澤과 서독에서 귀국, 가세한 朴利熙의 분전으로 지난 1회대회 우승팀이며 세계무대 전통적인 탁구강국인 스웨덴을 3-1로 격파, 우승했다. 한국여자 A팀은 국가대표 신진 尹璟美가 세계랭킹 24위의 강자 와다와 신예 후쿠다를 연파, 梁英子와 함께 강적 日本을 3-1로 제압, 2連覇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날 남자단체전 결승첫단식에 나선 金浣은 세계랭킹 4위의 강자 아펠그렌과 맞서 아펠그렌의 위력적인 드라이브 공격을 날카롭게 되받아 역습, 22-20, 21-17로 이겨 한국승리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제2단식에서 朴利熙가 범실을 연발, 발트너에 14-21, 13-21로 물러났으나 金浣·金琦澤 복식조가 아펠그렌·발트너조를 21-18, 21-17로 눌러 리드를 지키고 3차단식서 朴利熙가 아펠그렌을 21-14, 21-18로 제압, 토틀3-1로 승리했다.

한국여자A팀은 尹璟美의 선전으로 의외로 쉬운경기를 치렀다. 첫단식에 나선 尹璟美는 국제경기경험이 풍부한 수비선수 와다와 접전, 고비마다 적절한 속공을 성공시켜 21-17, 21-12로 이겼다. 장신드라이브 주전 梁英子도 日本의 신예 수비선수 후쿠다를 21-19, 21-16으로 물리쳤으며, 복식을 빼앗긴후 尹璟美가 후쿠다에 위협적인 공격을 퍼부어 21-7, 21-9로 3차단식을 승리로 마무리지었다.

여자개인단식 3회전서는 한국의 金恩喜, 梁英子, 尹璟美, 韓美玉, 李美雨, 申得花, 安海淑과 日本의 와다가 승리, 8강의 준준결승에 올랐다. 1회 대회 챔피언 黃男淑은 슬럼프에서 헤어나지못해 金恩喜에게 3-1로 패퇴했다.

◇제5일전적

▲남자단체결승

한국A	3		1	스웨덴A
金浣	3	(21-17, 22-20)	0	아펠그렌
朴利熙	0	(13-21, 14-21)	2	발트너
金浣·金琦澤	2	(21-17, 21-18)	0	아펠그렌·발트너
朴利熙	2	(21-18, 21-14)	0	아펠그렌

▲여자단체결승

한국A	3		1	日本A
尹璟美	2	(21-12, 21-17)	0	와다
梁英子	2	(21-16, 21-19)	0	후쿠다
尹璟美·梁英子	0	(17-21, 20-22)	2	와다·후쿠다
尹璟美	2	(21-9, 21-7)	0	후쿠다

▲남자개인단식2회전

盧潤寬	3-2	비로체
尹吉重	3-0	칼타왕
申東炫	3-2	봉유벵
金浣	3-0	라이에드
朴利熙	3-0	리킨키

▲여자개인단식3회전

金恩喜	3-1	黃男淑
梁英子	3-0	朴末粉
尹璟美	3-0	金淑
韓美玉	3-1	金明姬
와다	3-0	베이자메스
李美雨	3-0	鄭淑子
申得花	3-0	洪順花
安海淑	3-0	羅仁淑

핑퐁서도 男子체면

國際大會 첫頂上… 女子선수들의 「스파링·파트너」서 昇格

◇세계 4위를 잡은 金浣드라이브 세계랭킹 4위인 스웨덴의 신예 미카엘·아펠그렌을 완파, 한국남자단체우승의 길을 열어준 金浣의 드라이브공격.

제2회 서울오픈탁구대회 남자단체전 우승은 한국남자탁구의 가능성을 재확인한 값진 성과다. 한국남자탁구대표팀은 국내·국외무대를 막론하고 국제대회에서 처음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73년 이에리사·鄭賢淑의 한국여자탁구가 사라예보에서 세계제패의 영광을 차지한 이래 오히려 한국남자탁구는 여자탁구의 스파링·파트너로 격하되는 서러움을 맛봤었다.

81년 노비사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남자탁구는 朴利熙등의 분투로 북한에 1-3으로 뒤지다가 5-4로 역전승, 세계9위를 마크함으로써 국내탁구팬들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서울 오픈결승전에서 대결한 스웨덴은 73년 세계선수권을 제패한 강호다. 요한슨, 벵트슨의 퇴조로 81년 세계선수권서 11위로 처졌으나 주전 아펠그렌은 최근 유럽선수권을 획득, 세계랭킹 4위로 뛰어올랐던 강호인데다 우리와 전형이 비슷해 거북스러운 상대다. 반면 日本을 강력한 드라이브로 누르고 올라온 스웨덴의 아펠그렌은 朴利熙나 金浣등 수비에서 역습공격을 펴는 한국선수들에게는 약한 편이다.

金浣은 81년 노비사드에서 아펠그렌에게 패했으나 全美오픈서는 2-1로 설욕, 통산전적에서 4승2패로 앞서있었다. 朴利熙역시 아펠그렌에게는 전승. 결승에 앞서 이미 승산을 내다보는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됐다.

逆襲에 약한 스웨덴 日꺾고 올라와 幸運.

強訓보람…安宰亨등 有望株 발굴

비록 대표주전이 빠졌으나 세계3위의 日本과 강호 스웨덴을 제치고 우승함으로써 한국남자탁구팀은 그동안 힘써쌓은 훈련과 투자의 보람을 찾았다. 특히 신예 安宰亨이 세계32위 마에하라를 격파한것은 큰 성과였다.

여자팀은 黃男淑의 슬럼프에, 에이스 李壽子와 金貞淑의 부상으로 기대이상의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尹璟美, 梁英子등이 유럽강자들과 日本의 세계랭커 와다등을 격파, 세대교체의 시기를 맞고있는 한국여자탁구에 밝은 전망을 갖게해 주었다. 【方錫岬기자】

蘇, 美꺾고優勝

세계男농구 95대94

【칼리(콜롬비아)外電=聯合】 蘇聯은 제9회 세계남자농구선수권대회 우승 결정전에서 美國을 95-94, 1점차로 물리치고 우승, 67년 제5회대회이후 15년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3次戰선 日에惜敗

韓·日高校선발야구

【東京=宋孝彬特派員】 한국고교야구선발팀은 29일 오오사까(大阪) 구장서 폐막된 82년 韓日고교야구대회 최종 3차전에서 日本선발에 3-2로패해 2승1패로 대회를 끝냈다.

한국은 5회초 5번李勝珉의 중월솔로홈런으로 선제점을 올렸으나 피로에 지친 趙啓顯과 金東熙이 6회말 집중4안타를 허용, 2점을 빼앗겼다.

한국은 9회초 좌중월2루타로 나간 李勝珉을 갖은 仁川高의 朴元鎭이 우전적시타로 홈에 불러들여 1점을 만회했으나 후속타불발로 추격에 실패했다.

한국은 79년이후 8연승끝에 1패를 당했으나 역대통산전적에서 16승4무10패로 리드를 지키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한국, 蘇에패배

세계女子프레排球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세계여자프레배구 선수권대회 1차전서 蘇聯에 3-2로패했다고 선수단이 30일 알려왔다.

한국은 29일하오(현지시간)브라질 사옹파울로市이비라푸에라 체육관서벌어진 蘇聯과의 경기서 첫세트와 마지막 5세트서 듀스를이루는 접전끝에 경기운영 미숙으로 분패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⑥

동정과 우월감이 그 여자로 하여금 짐승간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더러운 고장에 필요 이상 오래 머물고 싶게했나보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가 고개를 들고 반문했다.

『왜 내 말이 뭐 잘못됐나? 덮어놓고 굽신대던 오목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빨리 끝낼수록 좋은 내외간이다 싶었는데 그렇게 아이까지 생겼으니… 으기보다는 새댁이 미련한데가 있구먼. 그것도 다 팔자소관이지뭐』

『잘못 보셨어요. 그이를, 그이는…』

『아, 알았어.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유서방 얘기가 아니오… 이 방말인데, 처음에 돈 한푼 안받고 빌려준 건 사정이 하도 딱해서이기도 했지만 식구가 단출해서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잖아? 남 사정 봐주는 것도 좋지만 나도 이제 내 집을 망치지않을 생각도 좀 해야겠어. 몸 추스르는대로 방 먼저 구해 나가도록 해요』

『알겠어요. 저도 여기서 아기를 기를수없다는 것쯤 알고 있어요. 그이와 의논해서 곧 방을 얻어보겠어요』

여자의 눈이 샐쭉해졌다. 아기를 기를수 없다니, 어디 얼마나 좋은데로 가게되나 두고보자는 심술궂은 얼굴이었다.

『참 조산을 했다며?』

여자가 새로운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처음으로 아기를 들여다 보았다.

『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목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할머니는 새댁이 조산같다고 했다던데』

『아니예요, 할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목이는 완강하게 우기면서 아기를 보듬어 안았다. 오목이는 그 여자의 호기심을 번득대는 눈이 싫었다. 그 눈이 아기가 미리 태어난 게 아니란 걸 밝혀낼까봐 겁이 났다. 오목이는 두려워하며 그 여자의 시선으로부터 아기를 지키려고 몸으로 아기의 얼굴을 가렸다.

『참 별난 사람 다 보겠네. 조산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우겨? 그리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엄벙결에 해산구완한 노인이 뭘 알겠어』

우길 수 밖에요. 제때에 태어났냐 미리 태어났냐에 따라 이 아이의 아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아이에게 확실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한 부모밑에서 자란 사람은 아마 모를거예요.

오목이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아이가 제때에 태어났건 미리 태어났건 간에 미리 태어난 아이로 굳혀야한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아이에게 확실한 부모를 주기위해서라면 일환이를 기만하는것쯤 문제도 아니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자식을 위해서라는 모성애의 지상목표 때문에 그녀는 거의 양심의 가책을 안느껴도 됐다.

『참, 유서방은 다녀나갔나?』

『아아뇨, 아직』

『저런 몹쓸 사람봤나』

여자가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새삼스럽게 오목이네 사는 꼴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여자가 속속들이 끔찍해하고있다는게 되려 오목이를 편안하게했다.

『지금 몇시나 됐을까요?』

『새댁아 그법석을 한는통에 김장이 여간 늦어졌어야지. 이제야 겨우 저녁해먹고 내려오는 길이야』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게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서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Wilson Eglinton Keele Bathurst Bayview CHINA HOUSE Bloor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a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담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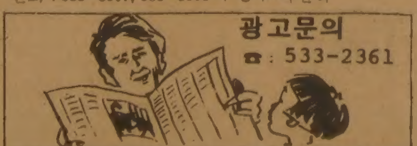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하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Part Time Helper 구함.
(서부지역) 전화 : 769-5956

유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가게 Part Time 남자 Helper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7-0847

씨알학교 운전수 구함.
동쪽 버스 운전하실분 구함.
전화 : 960-0074

점심시간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오전11시30-~오후2시30분 (3시간)
전화 : 757-6334

Shoe Maker(Finch & MacCowan Mall)
Helper 구함. (Full Time)
전화 : 291-8367(B)

도나스숍에서 밤에만 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지역) 밤11시-아침7시
풀타임 또는 파타임. 398 Church St.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2-2727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매매

Private Sale(Bungalow Type)
타주 이주관계로 가옥 급매.
4 Bed Rm. 2개의 차고(Double Garage)
Asking : $110,000
(Morning side & Lawrence 지역)
전화 : 281-0963 (5:00 p.m 연락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9월은 토요일만 오픈. 시간 12~6:00시
◉판매방법: 칼과 Box 준비. 직접 뽑아 가심.
◉채소종류: 배추, 여러가지 무 있음.
(열무김치·풋배추·국거리·저장류)
◉장 소: Eglington과 HWY10 교차에서 서쪽으로 1마일 가면 Second Line있음. 북쪽으로 500m.
◉연락처: 622-5509

(1)Variety Store $109,000(스카브로)
(2)Variety Store $28,000(Finch & Islington)
(3)Coin Laundry & 건물 $159,000(Bloor)
(4)건물 : Bloor & Christie. $154,000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Business Opportunity
위치: Borough of York. 매상 대단히 양호함
번창한 곳에 위치한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과일과 야채가게 좋은 리스. 꼭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Mr. Gim Gounelas 536-5600
Premore Real Estate Ltd.

나이아가라 지역 - 위치와 조건좋은 그로서리 스토아 주인 건강관계로 급매. 주매상 : 4,600-5,000불 보장
리스 : 5년+3년 2층 살림집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 요망.
전화 : 1-892-525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TUCK SHOP
주매상 : $4,500. 리스 : 84년 11월까지+5년
전 화 : 272-4568 (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VARIETY STORE 매매. (NO GROCERY)
3447 St.Clair E. at Birchmonut Rd.
전화 : 265-9000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좋은 가격으로 바쁜거리에 위치한 Variety Store. 주인 은퇴로 급히 팝니다. Call Mr. Messina
Cabot York Realty Inc. 781-6151. 677-0616

카드(Card) 렉 (4 ft.) 팝니다.
전화 : 769-5956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집렌트

4 Bed Room 집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npton 전화 : 1-632-9313

아파트렌트

"Sublet"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9월15일 입주가능함. 9개월 남았음. 한달 $378(유지비 포함)
3400 Weston Rd & Finch 전화 : 222-3877 (Miss 김)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